

百濟鷓尾考

徐 聲 勳

一、序 言

中國 周時代에 起源^①을 두고 있는 기와는 現在 燕의 것^②이 最古의 기와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中國 戰國時代에 河北 山東省 方面에서 遼河地方에 造瓦術이 波及된 후 漢武帝의 漢四郡 設置사이에 高句麗에 流入^③ 되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造瓦術은 南北朝時代에 이르러 急進的인 發展을 가져와 高句麗는 漢代文化를 背景으로 北朝文化의 影響을 받는데 比하여 百濟는 溫雅한 自然을 背景으로 展開된 南朝의 佛敎文化 影響을 받아^④ 外來文化를 土着시키므로서 發展하였다.

百濟의 佛敎文化는 周邊 隣接國家인 新羅나 日本에 많은 文化的인 影響을 미쳤음은 周知하는 바이며 特히 日本은 百濟를 通하여 文物이 傳達되어 6세기 말에는 飛鳥寺가 建築^⑤되는 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周邊隣接國家과 文化交流가 活發하였던 百濟는 泗泚城 遷都以後 6世紀中葉부터 7世紀에 걸쳐 發達된 隆盛期를 맞아서 新羅의 善德女王이 皇龍寺 木造九層塔을 建立하기 爲하여 工匠 阿非知를 請한 것^⑥은 當時 發展된 百濟文化의 斷面을 말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泗泚城內에 寺塔이 많았다고 史書에 傳^⑦하고 있음은 當代에 活發한 建築(創寺) 活動이 周邊隣接國家에 文化的인 影響을 베풀 수 있는 高度의 發展을 하였으리라 推定된다.

그러나 現在 扶餘地方에는 學術調査로 밝혀진 軍守里廢寺址^⑧ 東南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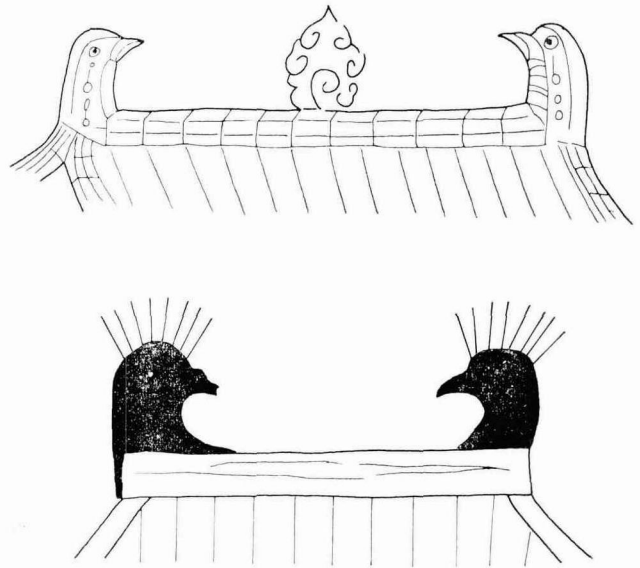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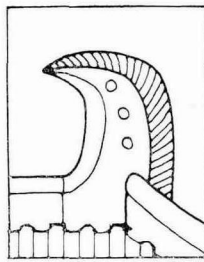


圖 1. 鳥首形의 鷓尾(村田治郎: 中國의 鷓尾略史에서 轉寫)
(上) Bezeklik 出土의 壁畫
(下) 敦煌千佛洞의 佛畫斷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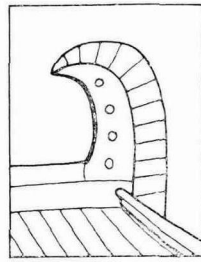
廢寺址^⑨ 佳塔里廢寺址^⑩ 窺岩里廢寺址^⑪ 傳天王寺址^⑫ 定林寺址^⑬ 金剛寺址^⑭ 扶蘇山西腹寺址^⑮와 學術調査가 되지 않은 10餘곳의 廢寺址가 있으나 當代의 建築術을 살필 수 있는 地上 建築物은 단 하나도 없다. 단 이들 廢寺址에서 廢見되는 礎石과 瓦當 平瓦 鷓尾片等에서 그 片鱗이나 確認되고 있지만 百濟 造瓦術의 白眉로 알려지고 있는 鷓尾에 對하여는 研究糾明된 바 없으며, 또한 確實한 形態를 알 수 있는 實物도 없어 日本 飛鳥時代나 白鳳, 奈良時代의 百濟樣式 鷓尾를 通하여 百濟鷓尾를 推察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1942년에 藤澤一夫, 米田美代治에 의해 發掘調査된 扶蘇山西腹寺址 發掘遺物中 未整理分을 1975年度에 整理하던 차 鷓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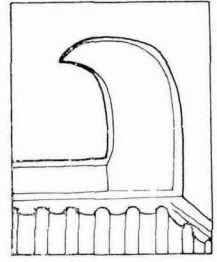
片을 確認하였다. 二箱子의 鷓尾片을 分類한 結果 四個體分이였으나 多 두 자갈과 같이 完破되고 破失된 部分도 많아서 復元될 可能性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一個體分은 頭部와 尾部片이 殘存하고 있어 1976年 부터 三年餘의 冬季를 利用한 期間에 復元作業을 繼續한 結果 1978年 3월에 完全한 形態의 百濟鷓尾를 再現하였다. 이 鷓尾의 復元으로 현재까지 알지 못하였던 百濟鷓尾의 形態를 確認하게 됨에 따라 百濟鷓尾를 研究하여 그 片鱗이나마 살펴보고저 하는 意慾에서 扶餘地方 各廢寺址에서 發見된 各種鷓尾片을 整理分析하였다. 이는 百濟鷓尾 研究의 資料提供과 아울러 周邊隣接國家와 文化的인 實證을 鷓尾를 通하여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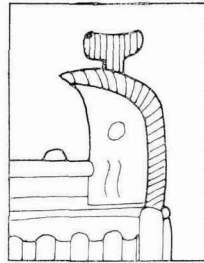
① 西安大雁塔石刻 (唐代鷓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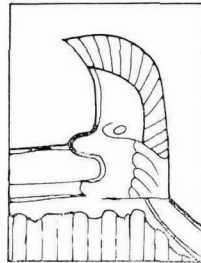
② 敦煌 220窟壁畫 (唐代鷓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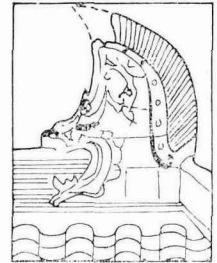
③ 邛山來盛陀寺磨崖 (唐代鷓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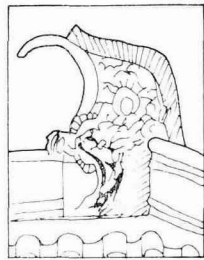
④ 大足北山磨崖 (唐代鷓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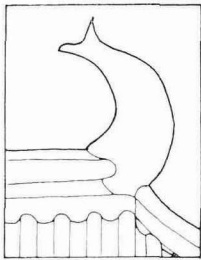
⑤ 樂山凌雲寺磨崖 (唐代鷓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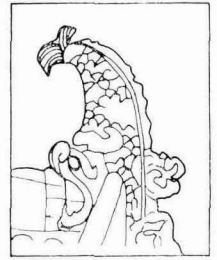
⑥ 五臺佛光寺大殿 (初唐鷓尾)



⑦ 薊縣獨樂寺山門 (遼代鷓尾)



⑧ 樂山龍泓寺磨崖 (唐代鷓尾)



⑨ 大同華嚴寺 薄伽教藏壁畫 (遼代鷓尾)

圖 2. 唐·遼의 鷓尾(中國의 鷓尾 略史에서)

의 石刻이나 壁畫에서 보이고 있다. 唐代的 鷓尾도 敦煌·甘肅·新疆의 諸石窟에 보이며 西安 慈恩寺大雁塔의 第一層 西側出入口 楣石에 彫刻된 佛殿의 鷓尾는 八世紀初唐代的 鷓尾樣式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建築에 使用된 實際의 古代鷓尾는 遺存하고 있는 것이 없어 前述한 資料들에 依하여 살펴볼 수 가 있으나 細部の 變化에 對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文獻에서 四世紀末에 鷓尾가 存在하였음을 미루어 四世紀前半쯤에 鷓尾의 使用이 始作되었을 것으로 推定될 뿐이다.

原始的인 鷓尾形은 後漢·趙曄의 吳越春秋에 「反羽爲兩鯢鱗 以象龍

아 보고저 시도하였으나 資料의 貧弱과 自身淺學非才하여 의도한 바가 미흡하였다. 앞으로 資料의 補充과 함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研究를 通하여 未備點을 補充하고자 한다.

1. 鷓尾의 起源과 用語

지붕용마루의 양끝에 裝飾되는 기와의 一種인 鷓尾는 中國에서 비롯되었다. 鷓尾가 文獻에 나타난 것은 後漢代 趙曄의 吳越春秋에 反羽로 表記된 것이 最古의 記錄이며, 晋代에는 潘岳關中記에 鳳凰으로 晋以後에는 北史宇文愷傳에 비로소 鷓尾로 記錄되고 있다.

鷓尾는 唐代에 와서야 盛行되었으며 南北朝時代에도 宮殿이나 寺院其他 官廳의 建築에 鷓尾를 使用하였음을 記錄이나 壁畫를 通하여 認知할 수가 있다. 遺物이나 遺蹟에 古代鷓尾의 形蹟이 나타나 있는 것은 漢代의 明器家屋이나 古墳 壁畫 또는 畫象石에서 推察되지만 雲岡石窟의 龍門石窟의 麥積山石窟의 敦煌莫高窟의 圖 1等

角「南大門上 有木蛇」에서 짐작되지만 反羽와 鯢鱗에 對해서는 異說이 分분하다.

본래 鷓尾의 正體는 무엇이며 어떤 目的에서 비롯되었는지는 未詳이나 漢代의 文獻이나 冢形明器에 依하여 屋上에 鳳凰을 裝飾한 것이 鷓尾의 始源으로 보고 鷓尾는 陽을 뜻하는 鳳凰의 깃을 象徵하며 火災나 其他 災殃을 쫓는 目的으로 造形되어 宮闕이나 寺院建築에 使用되었다는 說이 有力한 듯하다.

이같은 鷓尾는 四世紀로부터 八世紀까지는 거의 同一形의 鷓尾가 繼續된 듯 하나 唐代末期(九世紀)에 이르러 魚頭(圖 2) 같은 모양으로 變하고 怪魚가 巨口를 벌려서 용마루를 삼킨 듯이 물고 있기도 하며 空中에 솟은 尾部는 倒立한 魚尾形으로 變化하는 등 많은 變貌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같이 變形된 鷓尾는 唐末에 小龍으로 나타나 複雜한 形態로 變化한 후 元代(13世紀 後半)의 永樂宮龍虎殿彩釉鷓尾와 같이 龍頭形으로 完全히 變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變形된 鷓尾는 海獸形·飛魚形·龍頭形으로 나타나면서 名稱도 鷓吻(唐·宋·元·明代) 正吻(清代 北京에서 俗間에 通用)로 變하는 등, 其他의 形態로 된 것은 唐中期以後 부터이다.

日本에서는 鷓尾가 變하여 鬼板·鬼瓦·鯢(물범)로 나타나고 있는 듯 하나 우리 나라에서는 建築部材의 一種으로 退化되어 가면서 어느 時期인지는 未詳하나 消滅되어 버리는 現象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唐中期以後 많은 變化를 가져온 鷓尾를 從來 魚形으로 생각 하고 鷓尾各部의 用語를 定함에 있어서 頭部 胴部 背部 腹部 尾部 鱗部로 나누어서 各部의 名稱으로 通用하였다. 그러나 古代鷓尾에 있어서는 이에 따를 수 없는 用語로서 鱗部만을 後尾羽飾部(꼬리깃部)로 바꾸어 쓰고자 한다.(圖 3)

日本 玉虫厨子の 金銅製小形鷓尾(圖 42 上·右上)는 魚鱗과 같이 彫出하였으나 百濟鷓尾는 모두 羽狀形으로 되어 있어 前述한 바와 같이 鳳凰이나 其他 瑞鳥를 象徵한 것으로 推定되어 鱗部는 적합하지 않는 用

語이다.

2. 우리나라의 古代鷓尾

鷓尾는 一種의 裝飾瓦로서 한 建物の 左右 용마루 끝에 二個가 所用되는 屋蓋瓦이다. 使用量이 小量인 鷓尾는 形體도 크고 重量도 있어서 가장 破損度가 높은 關係로 完全한 形態로 遺存하기란 極히 어려운 狀態의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鷓尾를 對象으로 한 研究는 考證資料도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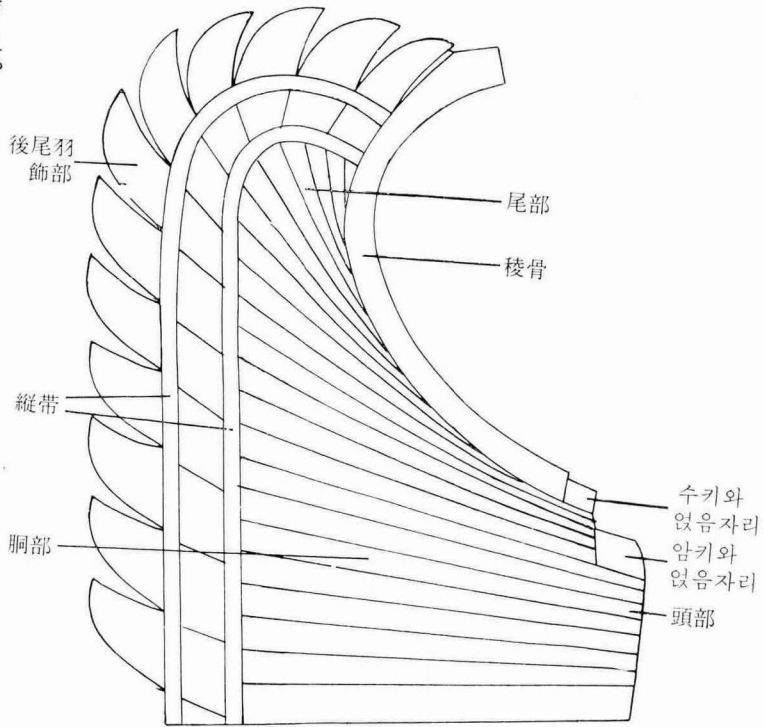


圖 3. 鷓尾各部 名稱

라서 貧弱하여 斷片의 紹介에 不過한 實情이다. 그러나 기초개된 資料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古代鷓尾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高句麗의 鷓尾

우리나라의 古代鷓尾는 古墳壁畫·文樣塼等에 나타난 建物圖나 當時의 建物址에서 發見된 鷓尾斷片에 依해 推察되고 있으나 記錄으로 傳하는 것은 없다.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鷓尾는 平南 龍岡郡 池雲面 安城洞大塚의 前室 南壁西部 樓閣圖^④에 鷓尾가 描寫(圖 4下)되어 있다. 이 壁畫는 壁面을 가로지르는 昌枋아래에 線畫의 樓閣圖가 있다. 이 樓閣圖는 故人이 生前에 살던 家屋으로 여겨지며 建物 용마루 兩端에 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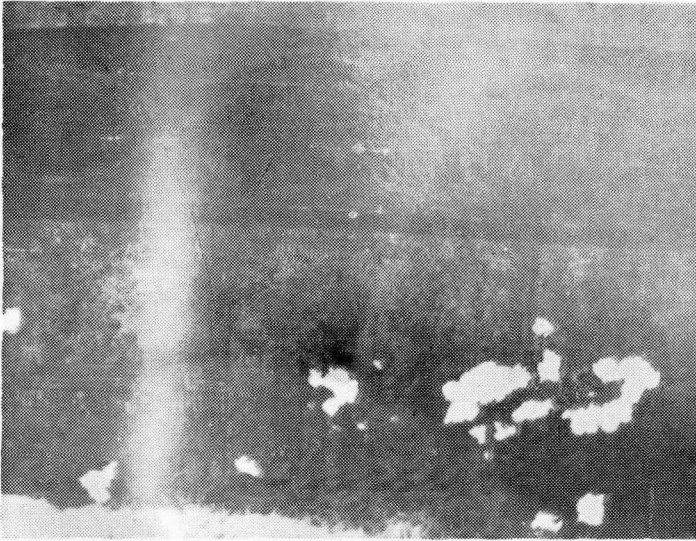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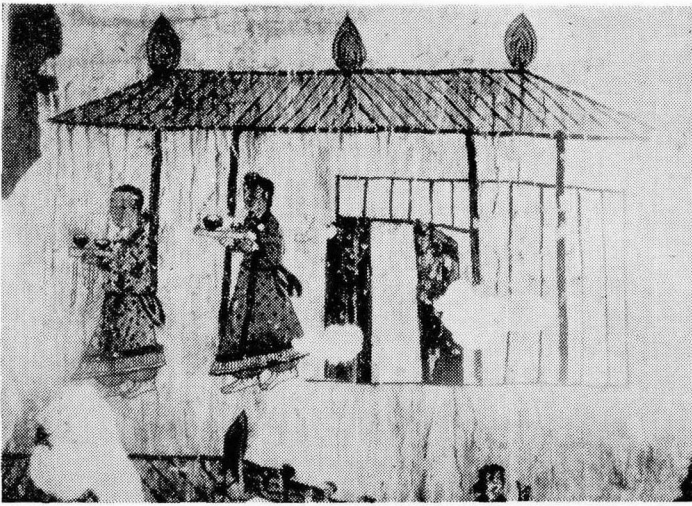


圖 4. 上은 舞蹈塚 主室東壁厨房圖
下는 安城洞大塚 前室南壁西部 樓閣圖(韓國美術全集 4 轉寫)

寫된 鷓尾가 當代 建築에 通用되었음을 暗示하여 준다. 또한 平南 溫泉 郡 梅山里 四神塚 玄室北壁의 主人과 세부인像^⑤에도 鷓尾가 描寫(圖 5上)되어 있다. 北壁에 그려진 主人夫婦의 神像의 肖像圖에는 木柱를 세우고 帳幕을 치고 위에 鷓尾와 風磬이 장식된 神殿式 建物안에 主人과 세 婦人이 平牀을 놓고 앉아있는 이 壁畫에 描寫된 鷓尾와 용마루 中央의 火炎文이 注目된다. 이 古墳은 4~5世紀頃으로 推定^⑥하고 있어 우리나라 鷓尾使用에 對한 年代推定에 決定的인 資料로 評價되는 壁畫圖라 하겠다. 平南 龍岡郡 池雲面 雙楹塚後室 北壁 夫婦像^⑦에 나타난 建物은 용마루 右側의 壁畫가 脫落되어 確認할 수 없으나 左側 용마루 끝

에 鷓尾가 描寫(圖 5下)되어 있으며 中央에는 火炎文이 있다.
中國 安徽省 蕪安縣 如山南麓의 舞蹈塚 主室東壁 厨房圖(圖 4上)^⑧와 角抵塚 主室東壁 시름도^⑨에 있는 建物에는 용마루 兩端과 中央에 各세개의 寶珠形 火炎文이 크게 描寫되어 있다. 이 火炎文은 大火珠를 뜻한 火炎으로 推定된다. 火炎은 陽을 뜻하므로 鷓尾와 火炎을 屋上에 두는 例는 河南의 龍門 第21窟의 北魏石刻에도 있으며 唐·劉肅의 大唐新語文面^⑩에도 나타나고 있다. 또 前述한 古墳壁畫에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이 古墳壁畫內 建物들의 寶珠形 火炎文(圖 4上)은 鷓尾를 象徵한 것으로 推定된다.
또 平南 江西部 藥水里 壁畫古墳 前室北壁 中心部에 있는 城郭圖^⑪는 城壁 中心部에 門樓가 있고 모서리에는 望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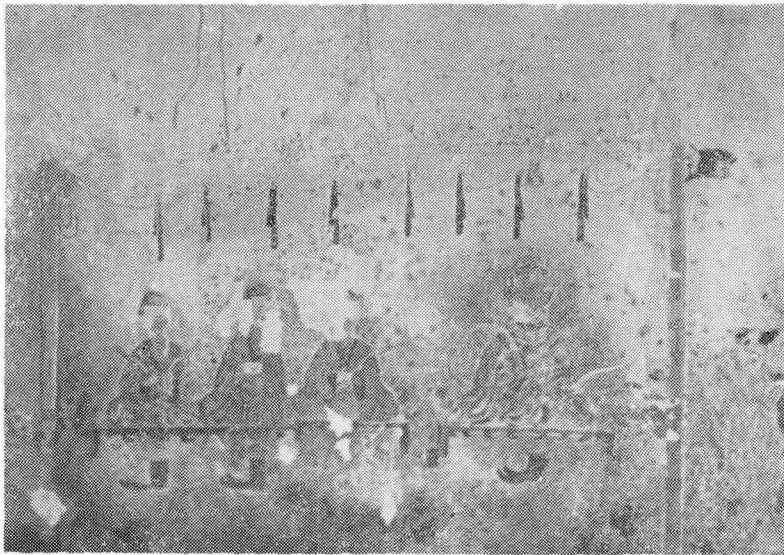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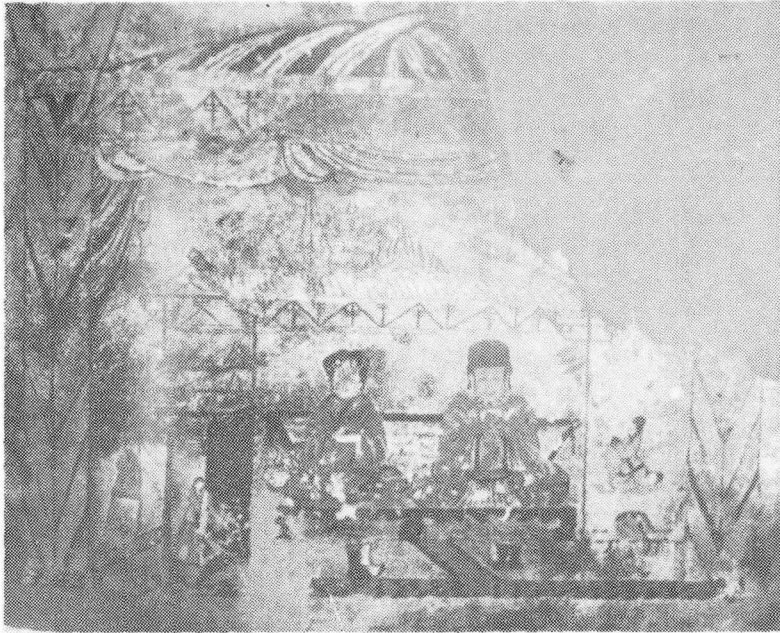


圖 5. 上는 梅山里 四神塚 女室北壁 主人과 세 夫人
 下는 雙楹塚 後室北壁 夫婦像 (韓國美術 全集 4 轉寫)

· 城內에 두 채의 建物이 있다. 이 建物들은 지붕 용마루 끝을 描寫한 手法이 모두 鷓尾를 뜻한 것으로 推定된다. 이와같이 우리 나라에서 鷓尾의 最初使用은 高句麗 古墳壁畫에서 確 認되고 있다. 梅山里四神塚·雙楹塚·藥水里古墳等이 前期(4~5世紀 推定)의 古墳^①으로서 이들 壁畫에 描寫된 鷓尾를 通하여 鷓尾使用의 上 限年代를 4~5世紀로 推定할 수 있다.

이들 古墳壁畫 以外的 高句麗 鷓尾는 全貌를 推察할 수 없는 元五里 廢寺出土鷓尾片^②과 通溝附近出土鷓尾片^③ 平壤附近에서 出土된 五例가 있으나 形態를 把握할 수가 없다. 元五里廢寺出土 小形鷓尾片 5片은 段形을 刻出하고 赤褐色을 띠고 있으며 通溝附近에서 出土된 鷓尾片은 扶蘇山出土 鷓尾片(圖 8)과 同樣 同形式의 段形列線羽狀을 彫出하고 있다. 其他 平壤附近出土 五例는 胴 體彫刻文樣이 큰 鱗形이거나 段形羽狀文을 刻出하였으며 後尾羽飾의 外輪廓線은 큰 孤 狀을 連續한 形式이거나 半 隋圓形을 連結한 形式을 보 이고 있다. 縱帶는 없거나 가 는 凸線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手法은 百濟鷓尾에 서도 若干 나타내고 있으나 明證할 資料가 없어 앞으로 이에 대한 研究가 있어야 겠 다.

② 百濟의 鷓尾

百濟의 鷓尾使用은 泗沘城 遷都以後 通用^④된 듯하며 漢 山城 地域이나 熊津城 地域 에서는 明徵할 資料가 없어 高句麗와는 상당한 時差가 있 는 듯 하다. 熊津地域에서는 大通寺址와 神院寺址에서 鷓 尾小片으로 推定되는 凡板^⑤ 이 發見된 例가 있다. 이 小

片들은 鷓尾腹部 斷片으로 推察되어 지기도하나 瓦板과 같은 形態를 보이고 있어 鷓尾片이라 確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現在는 이 斷片마저 實物이 없어 公州地域에서의 鷓尾는 確證할 수가 없다.

百濟가 高句麗의 強襲으로 漢山城에서 態津城으로 南遷한 후 開放的이고 進取的인 文化受容態度로 中國南朝와의 文物交流가 이미 武寧王代에 열려 宮殿이나 寺刹造營에도 南朝에서 影響된 建築活動이 活發히 展開된 것은 周知하는 事實로서 瓦當이나 武寧王陵 塚塋에 잘 나타나 있다. 當時 南朝文化가 投影融和된 面이 瓦當이나 塋等に 나타나고 있으므로 鷓尾도 使用되었으리라 推定되나 公州地方의 當代廢寺址나 建物址에서는 前述한 바와같이 이를 뒷받침할 鷓尾片이 發見된바 없다. 그러나 當代 鷓尾使用을 排除할 수는 없으며 그 可能性은 충분하다고 보아 진다.

泗泚城 遷都後 中國南朝諸國과 文化交流를 通하여 寺刹造營이 더욱 活發하였음은 史乘에 傳하고 있거니와 扶餘地方의 當時 百濟寺址는 有名無名의 20餘個所가 確證되었다. 이 各廢寺址에서는 各種의 大小 鷓尾片이 發見되고 있어 六世紀中葉에 와서야 百濟는 鷓尾가 盛行된 듯하다. 窺岩外里廢寺址出土 山景文塋(圖 6)은 繪畫的인 構圖에 依해 筆寫된 것으로 錯覺을 할만큼 立體的으로 表現된 繪畫라 한것으나 特히 注目되는 것은 建物에 描寫된 鷓尾이다. 山峰이 重疊한 山上에는 樹木이 叢立하고 中央에 一屋 右側에는 一人의 僧侶가 있다.

僧侶가 向하고 있는 中央의 一屋은 當時의 寺院으로 推定되며 이 寺院 建物屋上에는 鷓尾가 簡略하게 描寫되어 있어서 當時 建築物에 나타난 鷓尾를 確證할 수 있는 좋은 資料라 하겠다.

이와같이 百濟의 鷓尾는 泗泚城 遷都後 盛行되었음을 推察할 수 있다. 또한 百濟鷓尾는 日本에서도 考察할 수 있다. 百濟瓦工이 渡倭하여 造營한 寺院의 飛鳥時代 鷓尾는 百濟鷓尾로 定立할 수 있다. 그러나 奈良 飛鳥寺 大坂 四天王寺·新堂廢寺 등에서 發見된 것은 扶餘地方의 各廢寺址에서 發見된 鷓尾片과 同樣同質의 것이나 모두 小形斷片만이

어서 이것으로 全形은 把握할 수 없고 後의 白鳳·奈良時代에 나타나는 百濟樣式의 鷓尾를 通해서 形態는 推察할 수 있지만 彫出手法이 相異하여 百濟鷓尾를 이에 比肩할 수도 없다. 扶餘地方 各廢寺址에서 發見된 鷓尾에 對해서는 뒤에서 다시 서술하고자 한다.

③ 新羅의 鷓尾
新羅의 鷓尾는 資料의 貧弱으로 正確한 것은 알 수 없으나 三國中에서 가장 늦게 使用된 것으로 推定된다. 現在까지 알려진 新羅의 鷓尾는 皇龍寺址에서 發見된 鷓尾가 最古의 鷓尾로 알려지고 있다. 이 鷓尾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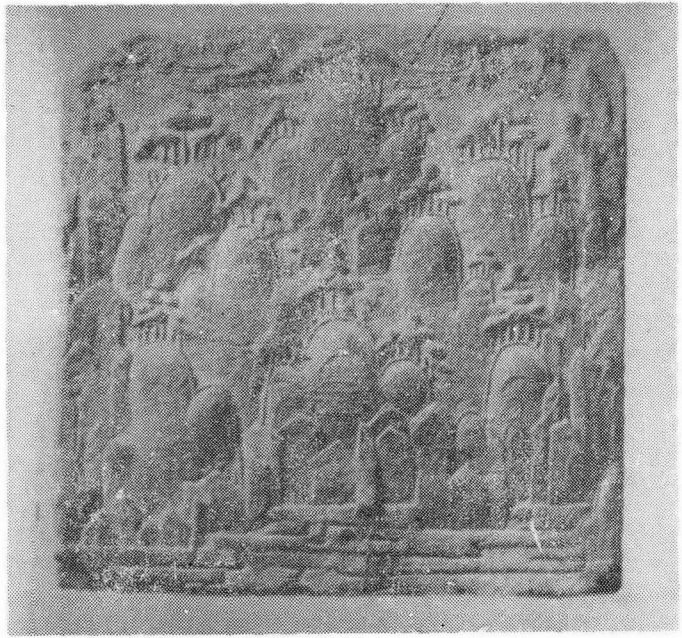


圖 6. 外里廢寺址 出土 山景文塋

講堂址 南北쪽에서 200餘片으로 破損된 狀態로 發掘^㉔되었으나 完全히 復元될 可能性이 있는 皇龍寺創建當時의 鷓尾로 推定되어 注目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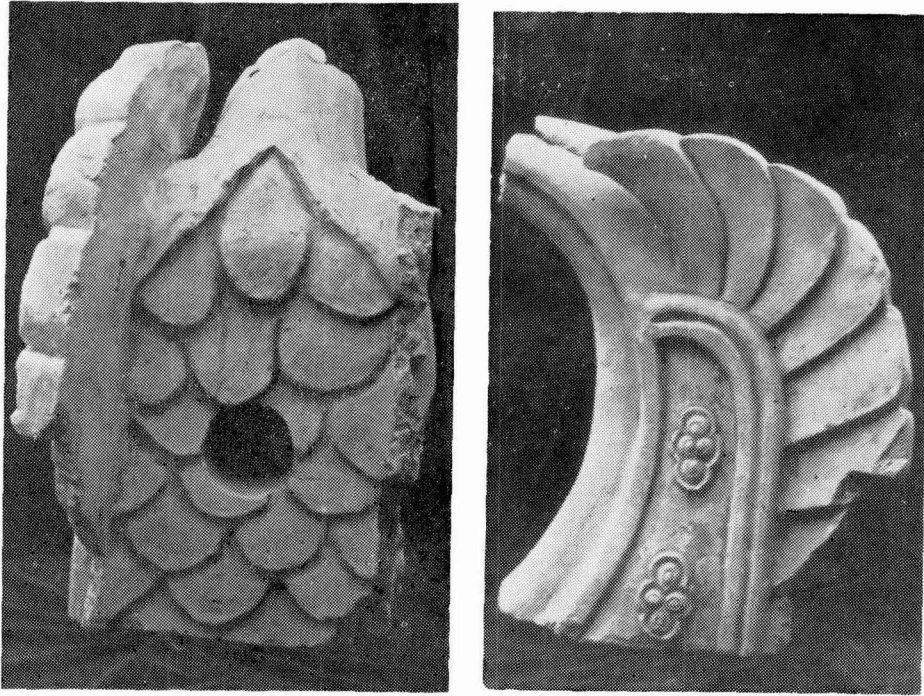


圖 7. 慶州 千軍里 廢寺址 出土 鷓尾殘欠(慶州博物館藏) 左는 腹部 右는 尾部

있다.

新聞報道에 依하면 높이 150cm의 大型鷓尾로 알려지고 있으나 確實한 것은 알수가 없다. 寫眞으로 推察하면 後尾羽節은 段型列線文羽狀을 彫出하고 縱帶內에는 蓮花文과 人面像을 浮彫하고 있음이 他に 없는 特徵이라 하겠으며 胴體는 無文이다. 筆者는 이 鷓尾가 古式이 아닌 唐系樣式的 鷓尾로 推測되므로 앞으로 正確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기 調査된 鷓尾는 千軍里寺址 金堂址에서 1928年에 發見된 唐系樣式的 鷓尾^㉕(圖 7)와 吐含山 東側 祇林寺에서 發見된 景德王 前後期의 石鷓尾가 있다.^㉖

또한 佛國寺 復元工事 當時 發見된 佛國寺出土 鷓尾는 破片 151片^㉗인데 이것도 唐系樣式을 보이고 있다.

前述한바와 같이 新羅鷓尾는 唐系樣式的 鷓尾로 統一後 盛行되었던 것으로 推定되며 百濟鷓尾와는 樣式과 手法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慶尙南道 蔚州都 農所面 中山里寺址出土 佛閣文庫^㉘(統一新羅時代)에 있는 鷓尾의 形狀도 注目할만한 資料이다.

二、扶餘地方出土 鷓尾

1、扶蘇山 西腹寺址 鷓尾

앞에서 敘述한바와 같이 1942년 9월에 扶蘇山 西腹의 廢寺址에서 發掘調査로 收拾된 鷓尾를 復元하면서 復元過程에서 觀察된 百濟鷓尾의 造形手法과 他例를 考察하면서 百濟鷓尾研究의 基本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西腹寺址鷓尾는 四個體分이었으나 其中한개만이 復元(圖 8)되었으며 各個體의 鷓尾片은 破失된 部分 補完에 큰 도움을 주었다. 復元된 鷓尾의 破失部分이 많아서 中途에 作業을 포기도 하였으나 破失된 形態가 他體에서 確認되어 石膏로 補完하고 稜骨을 中心으로 胴體는 左右對稱

으로 連長하여 破失된 部分을 復元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어려운 作業過程을 거쳐 復元된 扶蘇山西腹寺址 鷓尾는 最古의 唯一한 百濟鷓尾라 하겠다. 이 鷓尾가 復元되므로서 百濟鷓尾形態와 造形手法이 把握되어 百濟文化의 한 斷面을 엿볼 수 있다. (圖 9)

이 鷓尾는 높이 90.9 cm 밑면 길이 67.8 cm 이며 頭部는 높이 21.6 cm 幅 34.3 cm 이고 腹部는 底邊幅 56.1 cm 의 雅趣있는 조그만 것이다. 鷓尾形態는 後尾羽飾을 半月形을 半分한 듯한 形의 羽飾을 一面에 12個 彫出하고 後尾部와 胴體사이에는 幅 2.2 cm 높이 0.8 cm 의 斷面 半圓形 縱帶를 底部는 6 cm 에서 尾部는 5.1 cm 의 間隔으로 遞減하여 二線의 縱帶를 區劃하였다.

縱帶內에는 幅 0.4 cm 길이 6.5 cm 의 陰刻斜線을 後尾部羽飾 間隔에 따라 彫刻하였다. 胴體에는 22個의 段形列線羽狀을 胴體各面에 放射形으로 各各 彫刻하고 背部 中央에는 稜骨이 頭部로부터 柔軟한 曲線을 이루며 後尾部끝까지 斷面 半圓形으로 造形되었다. 頭部側은 稜骨幅이 7.4 cm 높이 4 cm 이며 後尾部の 最後端은 1邊長 4.7 cm 의 方形을 抹角하여 둥근 맛을 주고 稜骨끝은 곧게 잘랐다.

頭部는 높이 12.7 cm 幅 24.7 cm 의 半圓形 홈(圖 10)이 있어 용마루기 와와 連結할 수 있도록 造成되었다. 이 홈에 平瓦를 插入하여 頭部의 外緣넓이를 따라 頭部높이까지 平瓦를 쌓고 頭部 頂部에 平瓦 一枚를 덮은 後 稜骨끝턱에 수키와를 덮어서 용마루기와를 마무리한 것으로 推定된다. 鷓尾頭部에 있는 平瓦자리는 폭 26.5 cm 이며 平瓦가 頭部에 얹히는 길이는 7.3 cm 이다. 稜骨끝턱 수키와 자리는 얹히는 길이가 4.7 cm 이고 넓이는 6.8 cm 높이 3.3 cm 이다. 이것은 수키와의 속크기로서 小形기와의 있음을 알 수 있다.

腹部中央에는 蓮瓣端이 若干 突起反轉하여 豊滿感이 있는 徑 12.8 cm 의 素瓣八葉 蓮花文(圖 11)을 浮彫하여 腹面을 裝飾하고 있다. 腹面에 蓮花文을 浮彫한 鷓尾樣式은 日本 東京國立博物館所藏 高井田廢寺址出土 鷓尾(圖 41左)가 있으나 이 鷓尾는 唐系樣式으로서 胴部는 無文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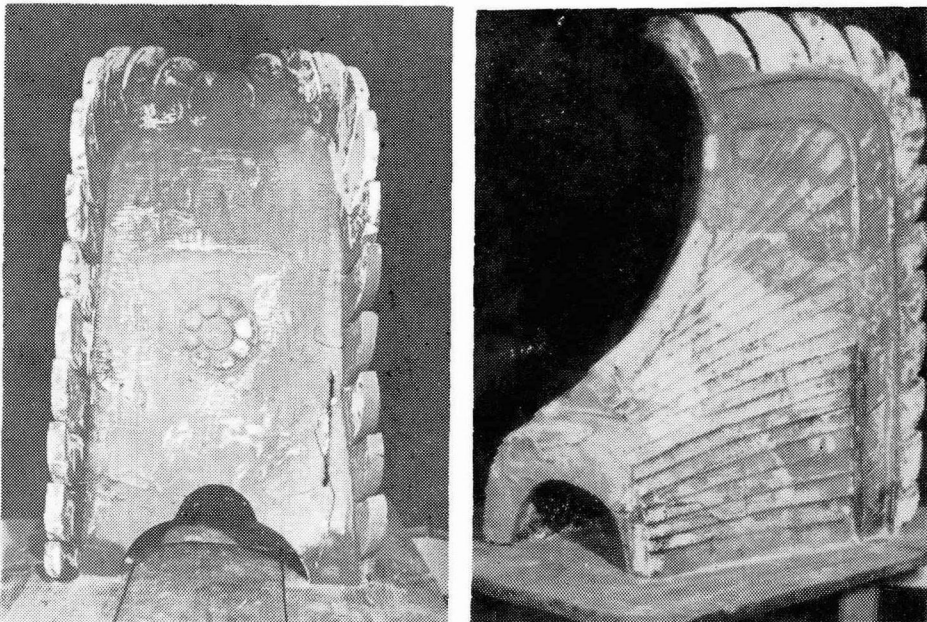


圖 8. 扶蘇山 西腹寺址 鷓尾(左는 腹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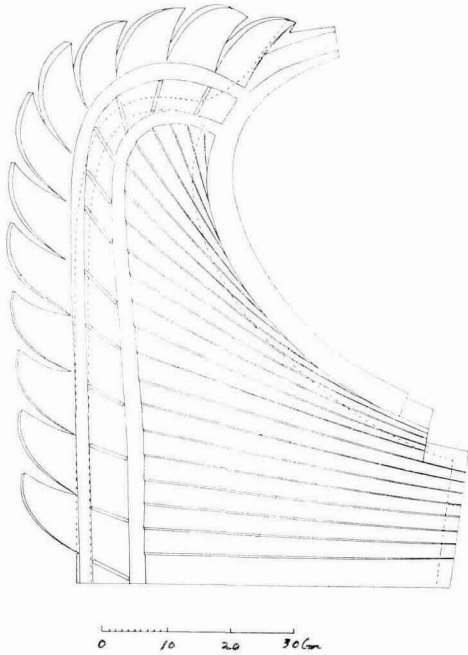


圖 9. 扶蘇山 西腹寺址 鴟尾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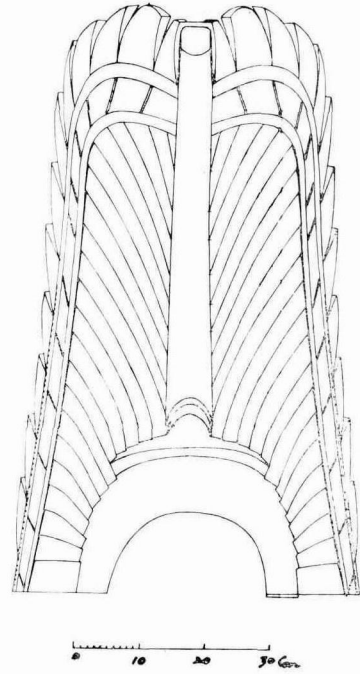


圖 10. 扶蘇山 西腹寺址 鴟尾背部 實測圖

며 縱帶에는 連珠文을 施文하였고 百濟鴟尾와는 造形手法이 判異하다.

西腹寺址鴟尾 腹部底邊 中央에는 幅 31.6 cm 높이 16.4 cm의 용마루 마무리를 하기 위한 凸形孔(圖 11)이 있다. 이孔은 수키와 2枚를 나란히 옆으로 붙혀 놓은 위에 수키와 1枚를 中央에 포개 없어서 끝마무리한 것으로 推定된다. 또한 鴟尾內部는 胴孔이며 胴體 兩側 羽狀裝飾 上端部는 方形의 못구멍(圖 12)이 各個마다 尾頂部로부터 5個까지 各 하나씩 들어 있어 後尾部 半月形羽狀에 다른 裝飾을 加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 단 復元時 造成手法에서 確認觀察된 點은 稜骨은 圓筒形을 切開한 形을 背部에 덧붙여서 稜骨이 筒形으로 胴孔이 있으며 縱帶도 덧붙임한 것이었다. 鴟尾를 빚어 만든 方法은 兩側 胴部壁을 土板으로 빚어 세우고 腹部와 胴部壁을 接着하고 背部를 빚어 附着한 後에 稜骨을 덧붙임하여 胴體의 羽狀과 後尾部를 彫出하였음이 復元過程에서 識別되므로서 이 鴟尾는 部分的으로 빚어서 이어부처 造成하였음을 確認하였다.

① 西腹寺址 鴟尾殘欠 其一(圖 13)

이 鴟尾는 1個를 三分^①하여 造成한 것으로 推定되며 頭部와 尾部를 欠하였다. 背面 中央에는 稜骨이 있었으나 脫落되고 稜骨을 接着하였던 形跡은 外幅 10.8 cm 內幅 5 cm로 筒形의 稜骨이 附着되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復元된 鴟尾(圖 8)에서도 稜骨이 胴孔이었으므로 이에 比見하여 同樣으로 判斷되며 胴體에 浮彫한 段形列線羽狀文도 放射形으로 彫刻한 手法이 同形이다.

이 鴟尾는 復元된 鴟尾에 比하여 큰 鴟尾로서 古瓦胎土로 燻造한 黑色 硬質의 鴟尾이다. 壁體의 두께는 3 cm이다.

② 西腹寺址 鴟尾殘欠 其二(圖 14)

後尾部의 羽狀은 復元된 鴟尾와 同樣이다. 이같은 手法을 보인 鴟尾는 扶蘇山 西腹寺址에서 發見되었으나 他는 斷片뿐이어서 그 例를 確認하지 못하였다. 半月形으로 裝飾된 後尾部 羽狀頂部에 方形의 못구멍이 있어 他裝飾이 附着된 것으로 推定되나. 이것이 百濟時代에 通用된 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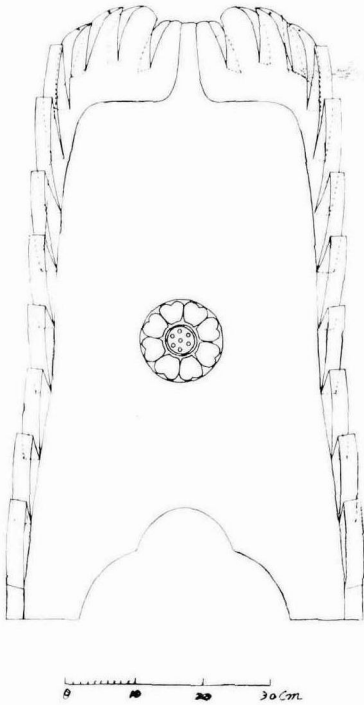


圖 11. 扶蘇山 西腹寺址 鷓尾 腹部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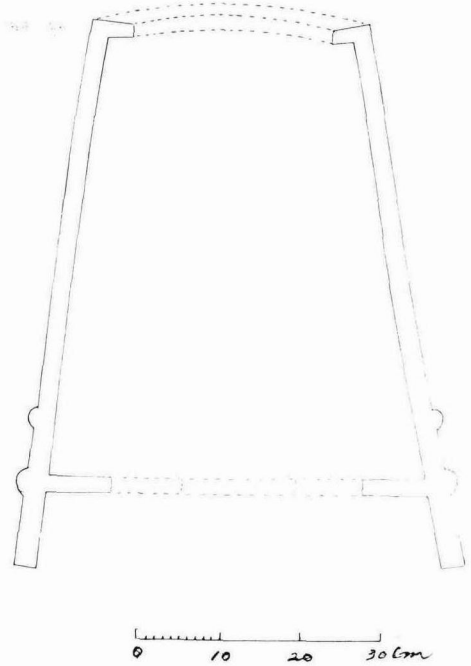


圖 12. 扶蘇山 西腹寺址 鷓尾 平面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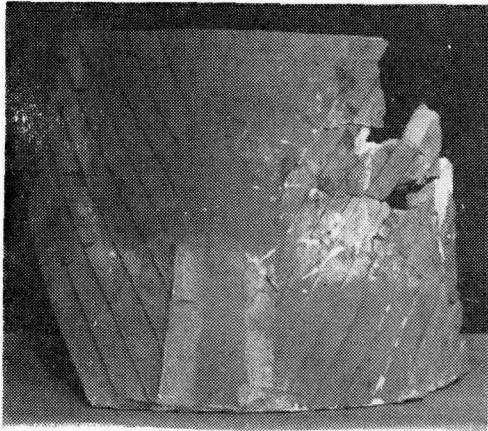


圖 13. 扶蘇山 西腹寺址 出土 鷓尾片

③ 西腹寺址鷓尾 頭部 斷片(圖 15)
 復元된鷓尾(圖 8)와 同 樣式인 頭部の 頂部斷片이 다. 復元된 鷓尾의 平瓦 없은자리와 稜骨끝턱의 수 키와 없은자리는 狹小한데 比하여 이것은 平瓦 없은 자리의 길이가 5.2 cm 두께가 1.5 cm 이다. 幅은

判別할 수 있다.
 腹 部 中 央 에 는 蓮 花 文 이 浮 彫 되 었 던 形 跡 이 남 아 有 ด้ 矣 . 이 는 바 닥 에 베 를 갈 고 胎 土 로 板 을 늘 려 附 着 하 고 連 結 部 를 손 가 락 으 로 늘 려 문 지 르 痕 蹟 을 確 認 할 수 有 ด้ 矣 . 腹 板 의 蓮 花 文 도 別 度 로 插 入 에 적 어 서 插 入 處 를 과 내 어 附 着 하 有 ด้ 矣 을 判 別 할 수 有 ด้ 矣 .

尾造形手法인지는 알수가 없다.
 縱帶는 接着部幅 3 cm 外表幅 2.3 cm 높이 0.9 cm 의 斷面 梯 形 으 로 된 二線 의 突帶가 弧를 이루어 浮彫되고 縱帶의 間隔은 9.5 cm 이다. 胴體는 段形列線文羽狀을 放射狀으로 彫出하였으나 幅이 넓 다 .
 이 鷓尾도 半分하여 造成한 尾部이며 腹部는 胴體內 縱帶部分에서 連 結되어 腹部側은 後尾部가 길 게 造成되었으나 半月形의 羽狀裝飾은 弧 線을 따라 陰刻線으로 底部까지 施文(圖 14左)하여 단조로움을 補完하 고 有 ด้ 矣 . 이 樣 은 鷓尾樣式은 他 에 없 은 例 로 서 百濟鷓尾의 一樣式이라 하 有 ด้ 矣 . 後尾羽狀部의 두께는 2.8 cm 이며 精選된 高운 胎土로 빚 어 서 播造한 黑灰色의 硬質鷓尾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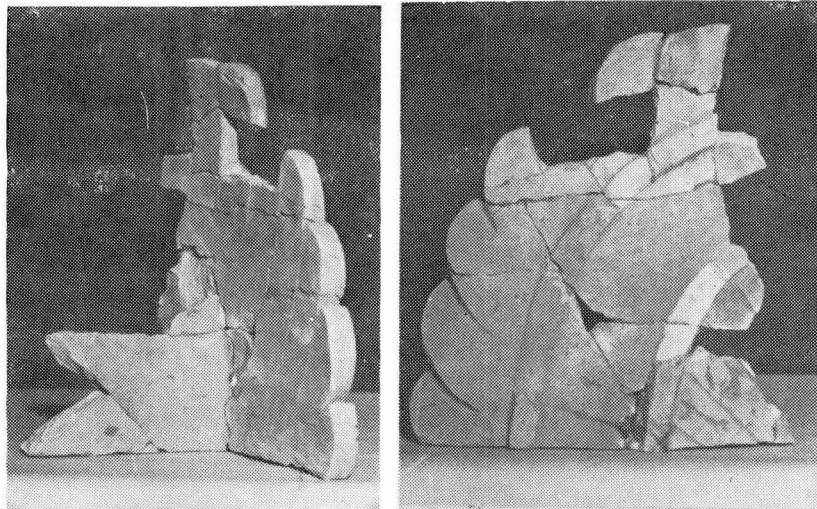


圖 14. 扶蘇山 西腹寺址 出土 鷓尾片(左는 腹部)

떨어져 나가서 앞쪽 없으나 큰 平瓦를 없지 않았다. 稜骨 끝 수키와 이음자리는 길이가 5 cm 이고 幅은 12.3 cm 인 斷面 半圓形의 稜骨 끝턱이 수키와의 속 크기이므로 큰 수키와로 判斷된다. 復元된 鷓尾와 수키와 이음자리를 比較하여 볼 때 鷓尾造形手法은 同樣式이라 하겠으나 크기가 相異하므로 同建物에 使用된 鷓尾는 아

니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百濟鷓尾는 平瓦와 수키와 이음자리를 만 들어 용마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設計된 것은 當時의 發展된 建築術의 一面을 살필 수 있는 資料라 하겠다. 이 鷓尾는 고운 胎土로 燻造되었으나 軟質의 灰色 鷓尾斷片이다. ④ 西腹寺址 鷓尾後尾部殘欠 (圖 16)

後尾羽飾後斷과 稜骨尾部後端이 남아있는 斷片이다. 이것은 復元된 鷓尾와 同樣同大로 同建物에 使

用된 한쌍으로 推定된다. 稜骨後尾端은 縱 4.1 cm 橫 3.7 cm 의 斷面 長方形을 등골게 抹角하여 頭部를 向한 下部의 稜骨은 斷面 半圓形으로 造形하였다. 後尾羽飾部의 羽狀은 半月形을 半分한 形態로 連이어 裝飾하고 있어서 外部輪廓線이 弧의 連續線과 같이 보이기도 한다. 復元된 鷓尾는 이 斷片을 많이 參考하였으며 만약 이 斷片이 없었더라면 復元이 不可能하였을 것이다.

이 斷片의 後尾羽飾部의 羽狀은 復元된 鷓尾와 同形으로 腹部에서 右側은 4個 左側은 3個가 남아 있다. 半月形羽飾은 덧붙였으며 稜骨後尾端 頂部와 半月形羽飾에는 裝飾을 附着하였던 1邊長 0.5 cm 의 方形 못구멍이 各個마다 한개씩 뚫여 있어서 이로 미루어 百濟鷓尾는 尾部頂上에 威容을 誇示하는 他裝飾을 加한 것으로 判斷된다. 後尾飾部 後端 두께는 2.5 cm 이며 胎土는 모래가 섞이지 않은 精選된 高운 흙으로 빚어 燻造한 灰色軟質鷓尾殘片이다.

2. 其他 扶餘地方出土 鷓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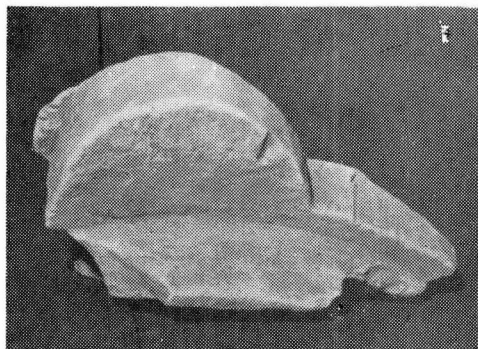


圖 15. 扶蘇山 西腹寺址 出土 鷓尾片

1. 舊校里 羯磨寺址出土 (所在未詳) 鷓尾斷片(圖 17)
1943년 5월에 發見된 斷片이다. 稜骨은 幅 12.7 cm 의 斷面 半圓形이며 胴體는 羽狀을 階段形으로 彫刻한 列線 文羽狀을 보이고 있다. 이 鷓尾는 扶蘇山 西腹寺址鷓尾(圖 13, 14)와 金剛寺址 鷓尾殘欠(圖 21)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는 造形手法이다. 이 鷓尾는 造成當時 하나의 鷓尾를 半分하여 燻造한 후

용마루 끝에結構할 때는半分된 鷓尾를 포개 올려서結構한 것으로推定된다. 西腹寺址鷓尾에서도 鷓尾 하나를 三分하여 造成한 例(圖 13)도 있었으므로 鷓尾를 빚어 만들 때 크고 무거운 것은 造形이나 燔造도 어렵고 용마루에結構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점의 便利를 위하여 半分하거나 三分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 이 鷓尾는 고운 胎土로 빚어 高溫에서 燔造된 灰色硬質 鷓尾로 10餘片이 收拾되었었다.

2、扶蘇山出土 鷓尾各種

① 鷓尾斷片 其一(圖 18)

이 斷片은 胴部和 後尾羽飾部를 幅 0.9 cm의 縱帶로 區劃分界하여 後尾羽飾은 段形列線文羽狀을 彫出하였다. 後尾羽飾端은 各個段型마다 弧形을 이루어 外部輪廓線은 弧狀을 連續한 形式을 보이고 있다. 縱帶內에는 忍多唐草文을 굵게 浮彫하였다. 이 鷓尾는 고운 胎土로 빚은 土板을 彫刻刀로 裝飾文樣을 彫刻하였으며 後尾羽飾部の 두께는 2.7 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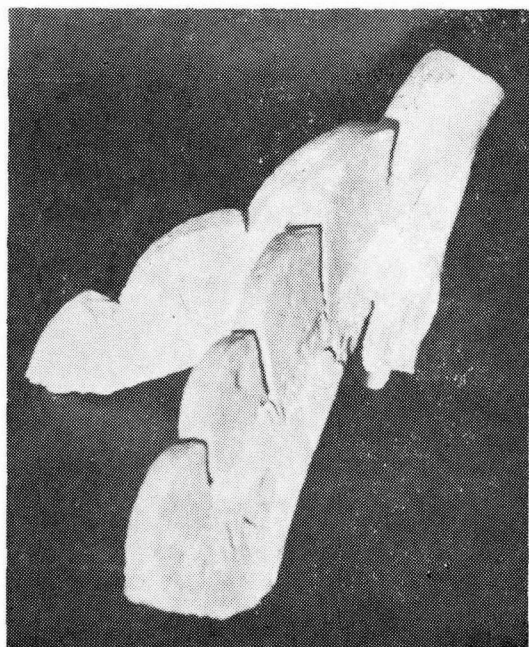


圖 16. 扶蘇山 西腹寺址 出土 鷓尾片

이러한 樣式은 日本 大阪 太平寺址에서 發見된 白鳳時代 鷓尾片^①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이것은 縱帶內에 葡萄唐草文을 半肉彫한 것(圖 42上、右下)이다.

② 鷓尾斷片 其二(圖 19)

胴部和 後尾羽飾部를 溝渠形으로 된 縱帶로 區劃分界하고 縱帶에는 粟大의 連珠文을 1.8 cm의 間隔으로 裝飾하고 있다. 이 斷片에는 4個의 連珠文이 있었던 것으로 推定되나 現在 1個만이 남아 있다. 後尾羽飾部는 約 2.4 cm 間隔의 平行陰刻線으로 羽狀을 彫出하고 周緣에 細線의 陰刻線을 겹으로 施文하고 胴部는 素地이다. 이 鷓尾는 고운 胎土로 빚어서 縱帶와 連珠文等의 裝飾은 덧붙임하여 燔造한 것으로 推定된다. 이러한 樣式은 1965年 9月에 發見된 日本兵庫縣 高丘瓦窯出土의 自鳳時代 鷓尾(圖 40左)에 그 手法이 傳하고 있으나 이것은 飛鳥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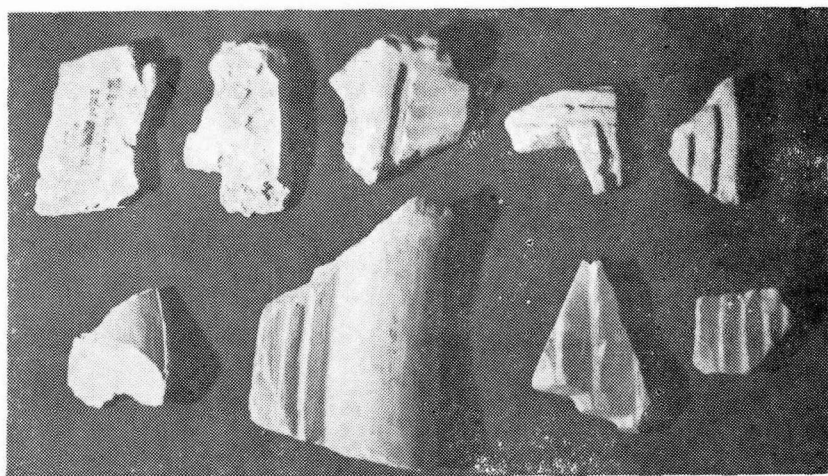


圖 17. 舊校里 羯磨寺址 出土 鷓尾片

의 連珠文이 있었던 것으로 推定되나 現在 1個만이 남아 있다. 後尾羽飾部는 約 2.4 cm 間隔의 平行陰刻線으로 羽狀을 彫出하고 周緣에 細線의 陰刻線을 겹으로 施文하고 胴部는 素地이다. 이 鷓尾는 고운 胎土로 빚어서 縱帶와 連珠文等의 裝飾은 덧붙임하여 燔造한 것으로 推定된다. 이러한 樣式은 1965年 9月에 發見된 日本兵庫縣 高丘瓦窯出土의 自鳳時代 鷓尾(圖 40左)에 그 手法이 傳하고 있으나 이것은 飛鳥時代



圖 19. 扶蘇山 出土 鷓尾片

이러한 鷓尾片은 胎土로 燻造된 軟質鷓尾로 灰色이며 두께는 2 cm 이다. 이 같은 樣式은 通講附近에서 出土된 高句麗鷓尾片에서도 그 手法를 찾아 볼 수 있



圖 18. 扶蘇山 出土 鷓尾片

盛行하였던 百濟 樣式中的 하나로 七世紀中葉에서 末葉까지로 推定 ⑥하고 있다.

③ 鷓尾斷片 其 三(圖 20)

이 鷓尾는 胴部와 後尾羽飾部를 段을 두어 區分하고 段形列線文羽狀을 彫出하였다. 段으로 區分된 胴

으며 日本最古의 鷓尾로 밝혀진 奈良縣 飛鳥寺 出土 飛鳥時代 鷓尾斷片에서도 確認할 수 있다. 飛鳥寺는 588년에 建築을 始作하여 596년에 完成된 日本最古의 寺院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扶蘇山 鷓尾斷片도 이에 比定하여 6世紀末葉 以前으로 時代를 推定할 수 있으며 高句麗 鷓尾와도 比較 研究할 수 있는 重要한 資料라 하겠다.

3. 金剛寺址 鷓尾

① 李夕湖所藏 鷓尾斷片(圖 21)

胴部와 後尾羽飾部는 幅 0.9 cm의 扁平한 縱帶로 分界하여 段形列線文羽狀을 彫出하였다. 各段은 平行線을 이루고 後尾羽飾部 外輪郭線도 段形이다.

腹部는 素地에 크고 길게 草花文을 彫刻한 듯하나 그 일부만이 남아 있어 全貌를 確認할 수가 없다. 腹部두께는 2.3 cm이며 後尾羽飾部の 두께는 4 cm이다.

胎土는 고운 粘土이며 黑色이나 內肉만은 붉은 粘土이다. 이 같은 樣式은 後尾羽飾部에서 若干의 相異點은 있으나 日本奈良 法輪寺 出土 白鳳 時代 鷓尾殘欠(圖 42上, 左)에서 그 例를 볼 수 있다. 胴體의 下半部와 後尾羽飾部の 緣邊을 欠失한 이 鷓尾는 羽狀이 直線의 描寫되었으나 羽狀의 幅이 넓다. 이 鷓尾는 百濟樣式을 繼承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飛鳥時代 鷓尾에 比하여 厚肉質이다.

金剛寺址 鷓尾는 古式的인 것으로 六世紀末까지 推定할 수 있는 鷓尾로 생각된다.

② 鷓尾殘欠(圖 22)

胴部와 後尾羽飾部는 幅 6.4 cm의 굵고 넓은 縱帶로 分界하여 後尾羽飾部는 段形列線羽狀을 彫出하고 外輪廓線은 內曲된 弧狀을 連續한 形態이다. 넓은 縱帶에는 直徑 4.3 cm 높이 2.5 cm의 連珠文을 浮彫하고 胴體는 無文의 素地이다.

이 鷓尾는 半分하여 造成하였던 것으로 推定되며 尾部는 欠失하였다. 이 殘欠도 頭部가 破失되고 後尾羽飾部の 한쪽을 欠하고 있다. 腹面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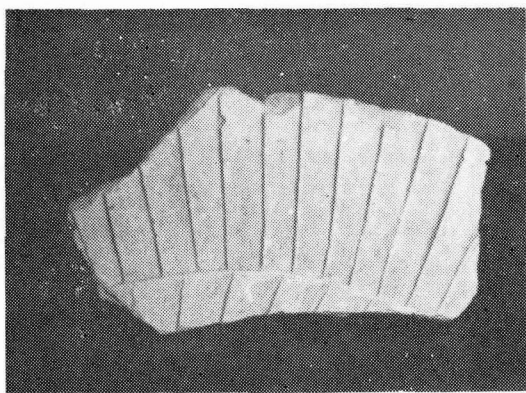


圖 20. 扶蘇山 出土 鷓尾片

고 胴部를 無文으로 한 唐樣式의 鷓尾에 比肩되고 있다. 이 金剛寺址鷓尾도 唐系樣式의 鷓尾로 百濟時代末期 以後 것으로 推定된다.

③ 鷓尾斷片(圖 23)

李夕湖所藏 鷓尾斷片(圖 21)과 同類의 鷓尾片이 發掘當時 10餘片이 出土되었으며 그 중 하나는 腹部片^㉞으로 火炎文과 같이 陰刻으로 彫出하였으나 小形斷片이어서 確實한 內容을 알 수 없다.

4. 雙北里寺址 出土 鷓尾片(圖 24)

現 扶餘教育廳敷地에 日政時 錦城國民學校를 新築할 때에 礎石과 瓦當 鷓尾片이 發見되었다. 이 雙北里 寺址^㉞에서 1945年 3月에 發見된 鷓尾斷片은 胴部와 後尾羽飾部에 굵은 陰刻線으로 羽狀을 刻出하고 縱帶로 分界하였다. 덧붙여 빛은 縱帶는 形蹟만을 남기고 脫落되었으며 鷓尾壁 두께는 3.4 cm이다.

部에는 수키와 1枚를 끼울 수 있는 半圓形의 透孔이 있고 背部는 胴部와 角을 이루 어 區劃하고 背部中央에는 斷面 半丹形의 稜骨이 있다. 胎土는 굵은 모래가 많이 섞인 粘土이며 後尾羽飾部の 두께는 6.4 cm의 厚肉이다. 이것은 金剛寺址에서 發見된 他鷓尾片(圖 21, 23)에서나 其他 百濟鷓尾에서는 類例가 없는 鷓尾이다. 이같은 樣式은 日本 鳥取縣 大寺의 白鳳時代 石製鷓尾(圖 41右)에서 볼 수 있는 手法으로 後尾羽飾部는 段形으로 彫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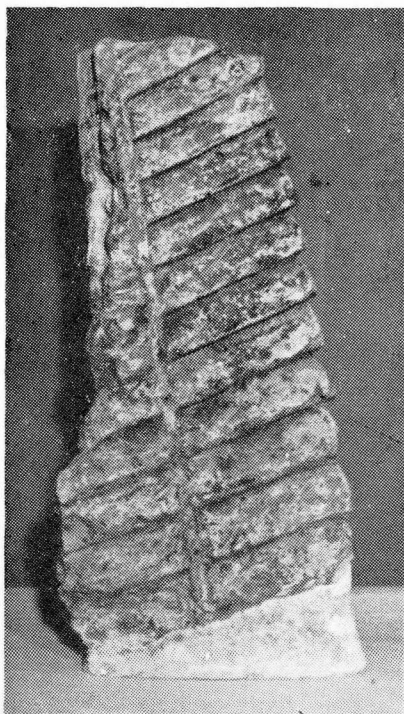


圖 21 金剛寺址 出土 鷓尾片(右는 腹部)

砂粒이 若干씩인 胎土로 빛어 燻造한 이 鷓尾는 白灰色으로서 造形手法에 이렇다 할 特徵이 없는 鷓尾다. 이러한 樣式은 日本 大阪 四天王

寺鷓尾(圖 40右)에 그手法이 나타나고 있으나 雙北里 廢寺址出土의 小形斷片으로는 그形態를 把握할 수가 없어 比定하기가 어렵다.

5、郡廳後發掘鷓尾片(圖 25)

扶餘郡廳을 三次나 移轉하여 出土地點이 어느곳인지 明確하지 않으나 이 鷓尾片은 他例가 없는 裝飾手法을 보이고 있다. 이 斷片은 段形列線 文羽狀을 彫出하고 胴體에 直徑 12cm의 素辨八葉蓮花文을 浮彫하였다. 蓮瓣端은 V字型으로 內曲되었으며 直徑 5cm의 子房은 全體가 磨滅되었 다. 이 鷓尾는 砂粒이 若干씩인 胎土로 빚어서 蓮花文을 틀로 찍어서 彫 出하고 羽狀은 彫刻刀로 彫刻하여 燻造한 것으로 推定된다. 他 鷓尾에 蓮花文을 浮彫한 例는 腹部(圖 8、41左) 또는 縱帶(圖 42 右上)에서 볼 수 있으나 이 斷片和 같이 胴體에 浮彫된 것은 이것이 唯一한 例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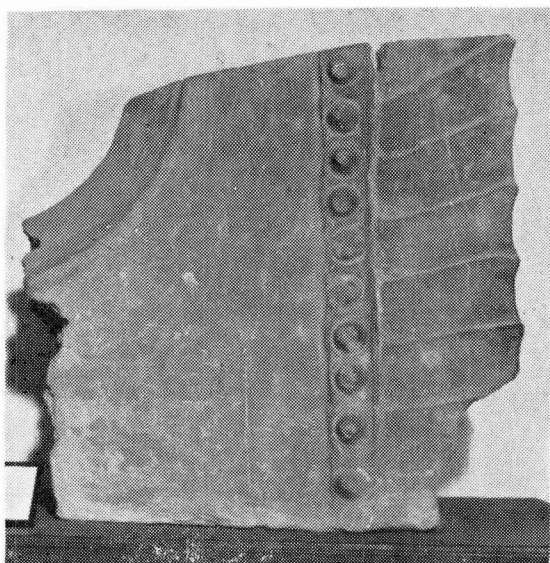


圖 22. 金剛寺址 出土 鷓尾殘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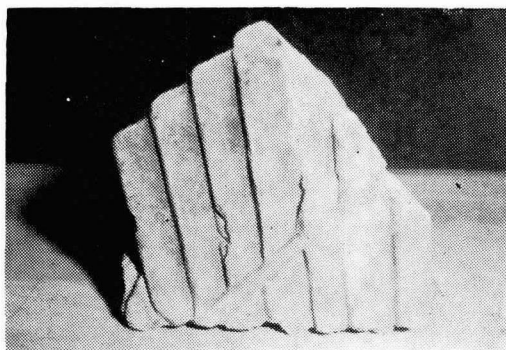


圖 23. 金剛寺址 出土 鷓尾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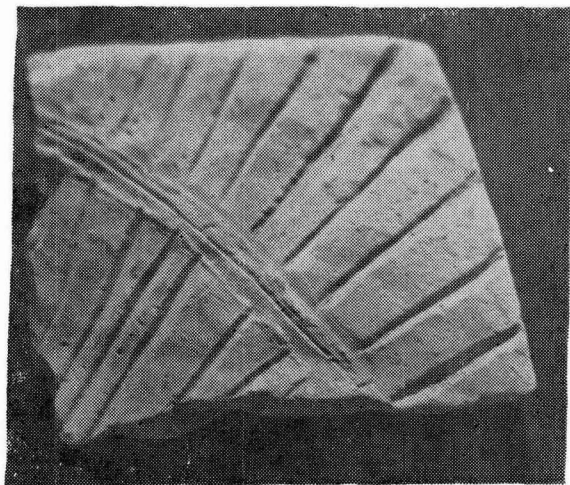


圖 24. 雙北里廢寺址(現教育廳) 出土 鷓尾片

6、錦城山出土 鷓尾片(圖 26)

이 鷓尾片은 1943年 7월에 錦城山寺址(傳天王寺址라고도 하는 共同墓地 部分)에서 發掘된 斷片으로 10餘片이 있다. 胴體와 後尾羽飾 部를 幅 0.4cm의 縱帶로 分界하고 胴體와 後尾羽飾部는 段形列線文羽 狀을 縱帶를 境界로하여 165도의 角을 이루었다. 胴體는 羽狀 間隔 을 좁게 後尾羽飾部는 넓게 各各 彫出한 手法이 扶蘇山鷓尾斷片(圖 20) 과 同樣으로 古式을 보이고 있다.

또한 縱帶에는 直徑 8.5cm의 圓形透孔이 있으나 他例가 없는 特異 한 形式이며 日本 四天王寺 講堂址出土 鷓尾와 兵庫縣 高丘瓦窯出土 鷓尾(圖 40)는 胴體下部 側面에 초생달형의 透孔이 뚫려 있으나 이것은 降棟으로 連結되는 수키와를 끼우기 위해 만들어진 구멍이므로 錦城山鷓尾例와는 相異하며 文樣等の 造形手法도 他例가 없는 獨特한 手法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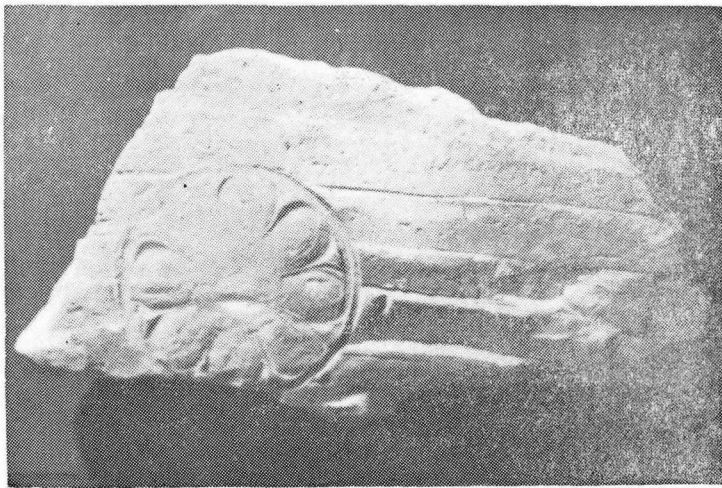


圖 25. 郡廳後發掘 鴉尾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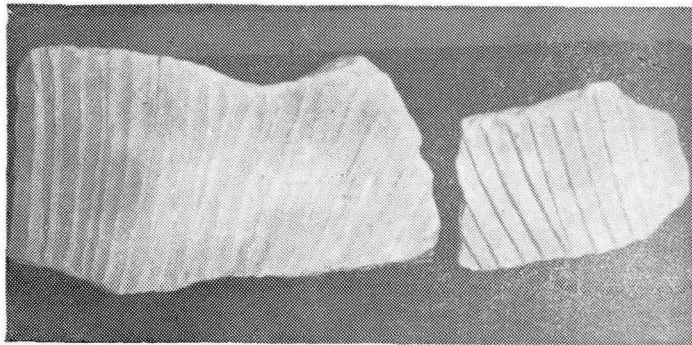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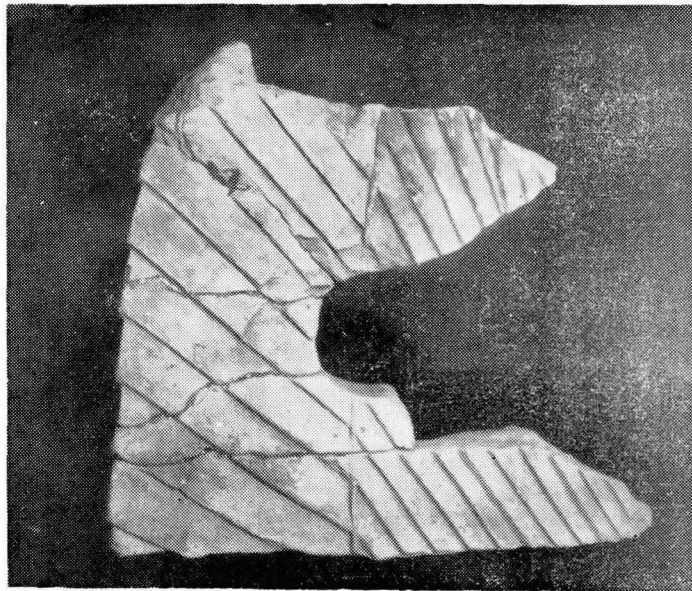


圖 26. 錦城山廢寺址 出土 鴉尾片

이고 있다.

後尾羽飾部の 두께는 5.1cm로 厚肉質이며 腹部로부터 後尾羽飾部 外緣길이는 1.9cm로 아주 짧다. 胎土는精選된 고운 흙이다. 厚肉質 로 빚어 燔造한 이 鴉尾는 背面中央에 斷面 半圓形으로 推定되는 稜骨 이 있었으나 破失된 斷片이어서 크기는 確認할 수가 없다.

7. 雙北里廢寺址 鴉尾

1936年 9月에 扶餘國民學校 敷地 整地作業中 發見된 鴉尾 二例 가 있다.

① 鴉尾斷片 其一(圖 27)

이 鴉尾는 後尾羽飾部 兩側面과 後斷을 階段形의 羽狀으로 彫出하고 胴部는 높이 0.8cm의 段을 이루어 縱帶로 分界하고 胴體는 素地이다. 稜骨은 幅 8.8cm 두께 7.9cm의 斷面 半圓形으로 巨大하다. 尾骨 尖端은 斜面으로 切斷하여 後尾羽飾部에서 高 1.5cm의 段으로 稜骨과 分界하고 있다.

鴉尾造形手法에서 百濟樣式과 唐樣式的 二系統으로 大別되는 百濟樣式은 6世紀中葉부터 7世紀前半에 盛行하고 唐樣式은 7世紀後半



圖 27. 雙北里 廢寺址 出土 鴟尾片

부터 나타나고 있다^㉑.

唐樣式的 特徵은 後尾羽飾을 段形列線文 또는 陰刻列線文으로 하여 縱帶는 連珠文蓮文花 또는 他裝飾文을 浮彫하기도 하였으며 胴體는 無文의 素地로 되면서

鴟尾의 形體가 투박하게 변화하였다. 日本 唐招提寺 鴟尾와 같이 구두형(靴)으로 변화한 것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이 雙北里廢寺址 鴟尾에서도 百濟의인 柔軟한 線보다는 直線의인 강한 맛을 주고 있어 이 鴟尾에 對하여는 確實한 資料의 增加를 기다려 變化한 要素가 確認되어져야 겠다.

② 鴟尾斷片 其二(圖 28)

앞의 鴟尾斷片和 同類로서 前者는 稜骨을 重厚하고 장엄하게 彫出한 데 比하여 이 斷片은 稜骨을 背部로 하여 幅 14.6 cm 두께 6.4 cm의 扁平한(斷面弧形) 稜骨을 이루었고 尾部尖端은 짧게 切斷되어 頂部가 투박하다. 또한 後尾羽飾部와 胴體는 幅 2 cm의 斷面圓形의 縱帶로 나누고 後尾羽飾部의 羽狀彫出手法은 前者와 同一한 手法을 보이고 있다.

두께는 3.2 cm이며 背部와 胴部는 幅 1.5 cm의 凹溝로 分界하고 胴體는 素地이다. 前者(圖 27)는 高句麗 胎土로 燻造된 赤色 鴟尾이나 後者(圖 28)는 砂粒이 若干 섞인 胎土로 빚은 灰色 鴟尾이다.

이 鴟尾의 稜骨樣式은 慶州 千軍里廢寺址 金堂址出土 鴟尾(圖 7)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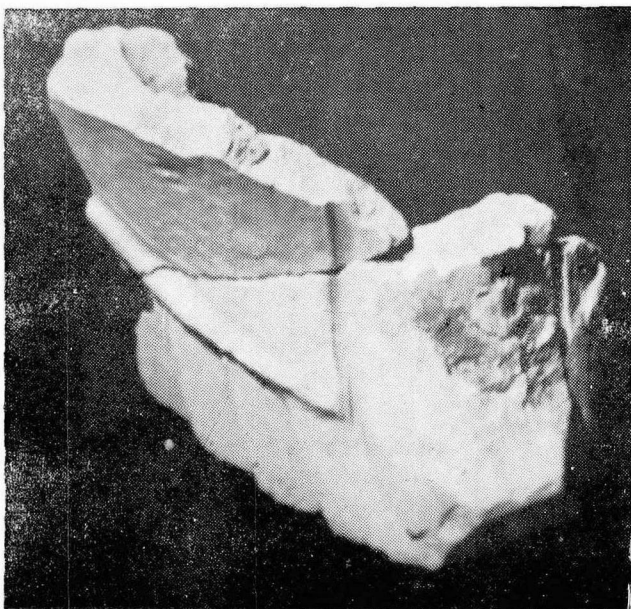


圖 28. 雙北里 廢寺址 出土 鴟尾片

서 同例를 確認할 수 있으나 形態가 判異하여 이에 比定하기 보다는 앞으로 確實한 資料의 增加와 더불어 究明되어져야 할 것으로 判斷된다. 千軍里寺址 鴟尾는 唐系樣式的 鴟尾이나 頭部와 胴體를 欠하고 있다. 이 鴟尾는 1928年 8月에 發見된 鴟尾로 形體는 肥大하고 尾部側壁에는 十字形 寶飾文을 各面に 2個씩 浮彫하고 後尾羽飾은 牛角形의 羽狀이 8個 남아있고 腹部에는 고기비늘 모양의 彫刻이 있는 中央에 圓形의 透孔이 있다.

雙北里寺址 鴟尾는 高句麗 蓮花文瓦當과 같이 發見된 點으로 이루어 高句麗와 關連있는 鴟尾일 可能性도 있으므로 앞으로 研究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8. 扶餘高等學校所藏 鴟尾斷片(圖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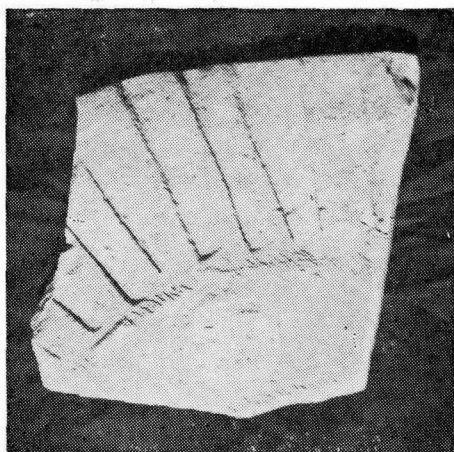


圖 29. 出土地 未詳 扶餘高等學校所藏 鷓尾斷片

이鷓尾片은 出土地가 未詳이나 斷片 2個中 그하나(圖 29)는 後尾羽飾後端을 三角形으로 하여 外輪廓線은 鋸齒形을 이루고 있다. 他(圖 29 左)는 胴部와 後尾羽飾部를 細線の 縱帶로 分界하고 두 凸帶로 된 縱帶內에 蓮花文을 浮彫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縱帶一部를 除外하고 脫落되어 그 形蹟만 있으므로 確實한 文樣을 알 수가 없다. 日本 打越瓦窯址 出土의 白鳳時代 鷓尾片(圖 42 下, 右上)에서 後尾羽飾部의 羽狀을 陰刻線으로 彫出하고 縱帶內에 蓮花文을 連珠文形으로 浮彫하였으며 白鳳時代 四天王寺 鷓尾片(圖 42 下, 左上)에는 後尾羽飾部의 羽狀을 階段形으로 彫出하고 縱帶內에 小形蓮花文을 連珠文形으로

로 浮彫하였다. 胴部에는 重孤蕨手文이 裝飾된 唐系樣式으로 밝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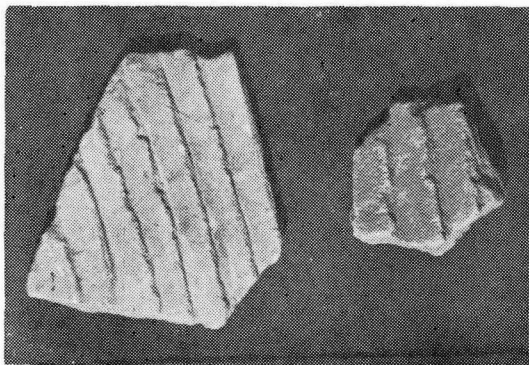


圖 30. 軍守里 廢寺址 出土 鷓尾片

形樣式에 있어서 古式으로 推定된다.

10、定林寺址 鷓尾片

1943年 定林寺址 發掘調査時에 發見된 鷓尾片으로 二種類가 있다.

① 百濟時代 鷓尾斷片(圖 31)

小形斷片 뿐이어서 形態나 詳細한 것은 알 수 없다. 이 斷片은 後尾羽飾部의 兩側面과 後端을 段形의 羽狀을 浮彫하였고 羽狀의 幅은 좁으나 段은 높고 胴部와 後尾羽飾部는 斷面方形의 縱帶로 分界하였다. 胎土는 砂粒이 若干 섞여 있으며 두께 3cm의 灰白色 鷓尾片이다.

② 鷓尾斷片(圖 32)

前者에 比하여 體壁이 두텁고 造形手法이 단조로운 斷片이다. 後尾羽飾은 陰刻線으로 羽狀을 施文하고 縱帶도 陰刻線으로 나타내

扶高所藏鷓尾斷片은 이것들에 比肩하기 보다는 百濟鷓尾의 한 樣式이라 推定되며 이를 定立할 수 있는 資料의 增加를 기대한다. 9、軍守里廢寺址 鷓尾片(圖 30)

砂粒이 섞인 胎土로 빚어 燻造한 이鷓尾는 赤色이며 두께는 3cm이다. 小斷片이어서 形態는 알 수 없으나 階段形으로 彫出한 羽狀은 段이 높다. 이것은 錦城山寺址 鷓尾片(圖 26)과 같은 手法을 보이며 이러한 手法은 百濟鷓尾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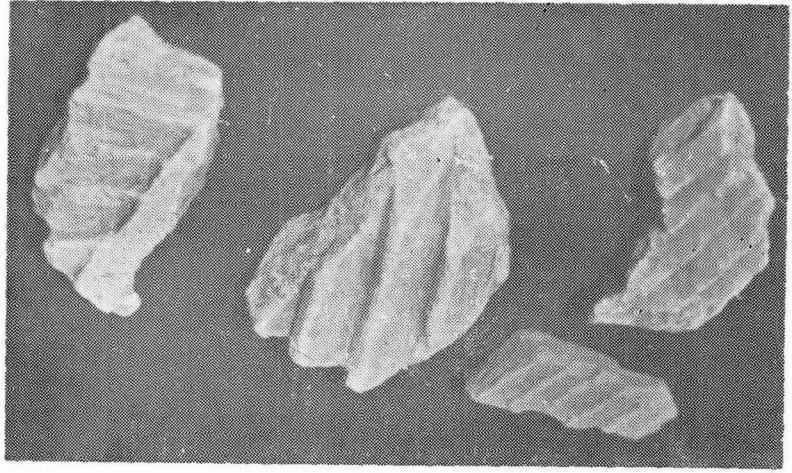


圖 31. 定林寺址 出土 鷓尾片

었다.

壁體는 4.7 cm의 肉이며 도래가 섞인 胎土로 重厚하게 빚어 만들었다. 胴部는 重孤文 施手文을 陰刻線으로 施文하고 他片에는 重厚한 裝飾文樣을 彫刻한 것도 있으나 小斷片 이어서 確實한 文樣을 알수가 없다. 이 鷓尾는 앞의 百濟時代 鷓尾에 比肩하여 造形手法 이 判異하며 他例에서 도 볼 수 없는 鷓尾樣式이다.

이 鷓尾斷片은 高麗時代 것으로 推定되나 比肩할 資料가 없다.

11, 舊校里 鄉校밭

寺址 鷓尾(圖 33)

寺址는 現在 扶蘇山

에 있는 上水道 給水場으로 들어가 全貌를 잃고 있으나 이 寺址에서 瓦當等 많은 遺物이 發見되었다. 이 鷓尾片은 1977年 7月에 發見된 것으로 後尾羽飾部를 階段形의 羽狀으로 外輪廓線은 孤의 連續線으로 彫出하였다. 이 斷片은 忍冬唐草文이 縱帶에 浮彫된 扶蘇山出土 鷓尾片(圖 18)과 同類의 것으로 推察되나 縱帶內의 忍冬唐草文은 破失되었다. 또한 階段形의 羽狀彫出 手法은 段을 위로 향해서 彫刻한 것이 扶蘇山

鷓尾(圖 18)와 더불어 他例가 없는 特徵이라 하겠다. 後尾羽飾部の 두께는 2.5 cm이며 胎土는 砂粒이 若干 섞인 것으로 扶蘇山 鷓尾와 同質이며 共に 赤褐色이다.

12, 舊衙里 廢寺址出土 鷓尾片(圖 34)

後尾羽飾部の 小形斷片이다. 後尾羽飾部の 兩側面과 後端은 段形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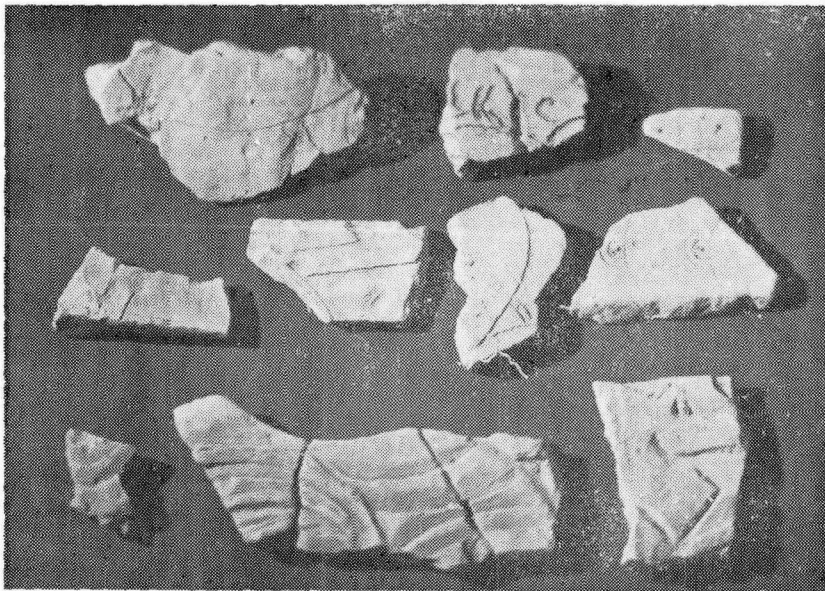


圖 32. 定林寺址 出土 鷓尾片

羽狀을 斷面梯形으로 彫出하였으며 두께는 3.2 cm이다. 胎土는 精選된 靑운 흙으로 燻造하였으며 灰色이다.

13, 龍井里出土 鷓尾片(圖 35)

洞部の

斷片 2點

이 197

6年 3月

에 扶餘龍

井里田 4

02-1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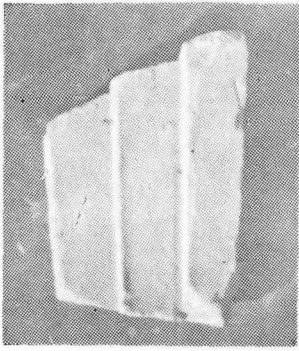


圖 34. 舊衙里廢寺址 出土 鳥尾片

2.6 cm의 薄葉質이며 黑灰色을 띠고 있다. 이것도 胴部斷片뿐이라서 全貌는 알 수 없으나 胴部에 彫出한 羽狀은 段形列線文이며 扶蘇山 西腹寺址 鳥尾(圖 8)와 같은 造形手法을 보이고 있다. 이 斷片은 後尾羽飾部를 欠한 胴部片으로서 縱帶를 斷面半圓形으로 덧붙임

百濟時代의 鳥舍寺址³⁸로 밝혀진 이 廢寺址에서 百濟時代의 蓮花文瓦當과 鳥尾片等이 發見되었으나 鳥尾片은 胴部の 小斷片이어서 鳥尾의 形態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鳥尾片은 李夕湖所藏 鳥尾片(圖 36)과 龍井里出土 鳥尾片(圖 35) 舊衙里 廢寺址 鳥尾片(圖 34) 등과 手法이 같은 同類의 鳥尾이며 두께는 3 cm이다.

17. 益山 蓮洞里出土 鳥尾片(圖 39)

1939년에 益山郡 三箕面 蓮洞里 石佛庵(威鳳寺)에서 發見된 小斷片이다. 後尾羽飾部와 胴部를 幅 2 cm의 凹形縱帶로 分界하고 縱帶內에는 徑 1.7 cm의 連珠文을 浮彫하였다. 後尾羽飾部는 羽狀은 階段形의

한 手法은 百濟鳥尾의 通例를 따르고 있으나 樣式等은 알 수가 없다.

15. 井洞里 밭골廢寺址 鳥尾片(圖 37)

砂粒이 若干 들어 있는 胎土로 빛은 鳥尾이다. 이 鳥尾片의 두께는

2.6 cm의 薄葉質이며 黑灰色을 띠고 있다. 이것도 胴部斷片뿐이라서 全貌는 알 수 없으나 胴部에 彫出한 羽狀은 段形列線文羽狀을 彫出 體壁은 4.5 cm이다.

段形列線文羽狀을 彫出 胴部の 斷片이어서 形態

16. 聖住寺址 鳥尾片(圖 38)

한 것이나 縱帶內에 陰刻斜線을 施文한 것 등의 手法이 西腹寺址의 鳥尾와 同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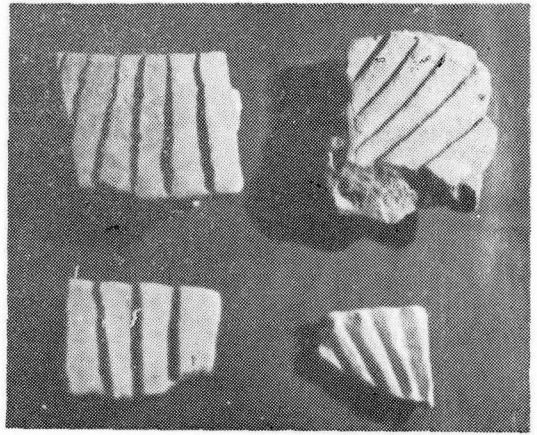


圖 33. 舊校里 향교말寺址 出土 鳥尾片

地에서 開發作業中 發見되었다. 이 鳥尾는 幅이 좁고 段이 높은 階段形의 羽狀을 彫出한 手法은 扶蘇山 西腹寺址의 鳥尾(圖 8, 13)와 같다. 두께는 3.4 cm의 薄葉質이며 胎土는 高운 粘土이다.

14. 李夕湖所藏 出土 地未詳 鳥尾片(圖 36)

砂粒이 섞인 胎土로 빛은 硬質 鳥尾로 灰色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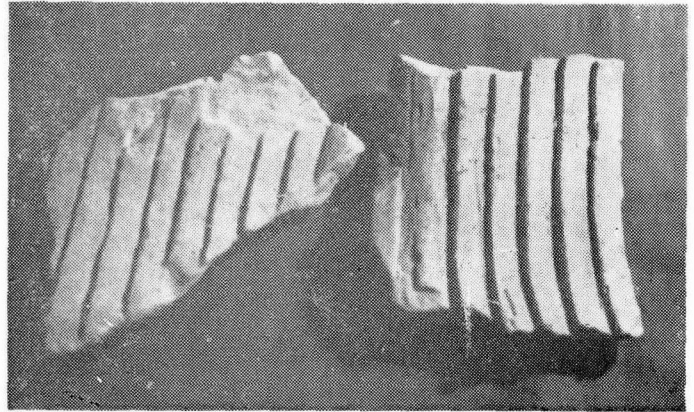


圖 35. 龍井里 田 402-1 出土 鳥尾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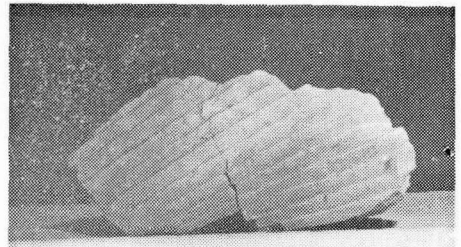


圖 36. 出土地未詳 鳥尾片 李夕湖所藏

日本奈良県高市郡明日香村の飛鳥寺中金堂・東西兩金堂・講堂址에서出土한飛鳥時代の百濟樣式鷓尾片四種類外에平安時代까지使用되었던各種의鷓尾가約70餘遺蹟에서90例^㉞가알려지고있다. 그러나日本에서 이와같이各時代に 걸쳐使用된 많은鷓尾가發見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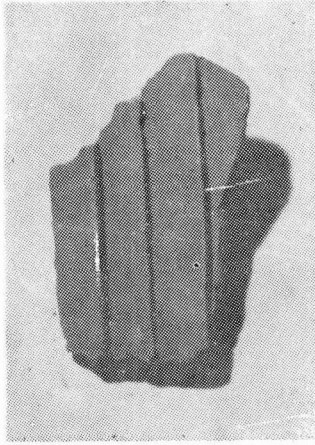


圖 38. 聖住寺址 出土 鷓尾片

로彫刻하였으나小斷片이어서形態는알수가없다. 이鷓尾는굵은砂粒이 섞인胎土로 빚었으며 두께는 2.3cm의薄葉質로黑灰色이다.

3、日本에 있는百濟系鷓尾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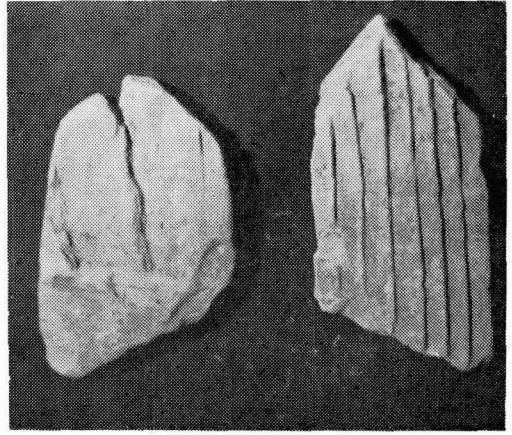


圖 37. 井洞里 밖골사지 出土 鷓尾片

이같은樣式은日本兵庫縣高丘瓦窯出土의鷓尾(圖40左)와奈良唐招提寺金堂의鷓尾에서그一斷面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이것들은縱帶에小形의連珠文을密接하게浮彫하였으며唐招提寺의鷓尾는下緣部까지連珠文이 있으므로威鳳寺의鷓尾小斷片으로는比肩하기가어려우나縱帶와縱帶에裝飾된連珠文·羽尾後飾의彫出手法等에서같은樣式을 보이고 있다.



圖 39. 益山 運洞里 石佛庵出土鷓尾片

지만全形을알수 있는 것은創寺以來世傳된唐招提寺의鷓尾와玉虫厨子鷓尾를合해서10餘個에不過하다. 全形을알수 있는鷓尾는

- a、和田廢寺址出土鷓尾
- b、大阪 四天王寺 講堂地出土鷓尾…白鳳時代(圖40右)
- c、兵庫縣 高丘第3號窯址出土鷓尾…白鳳時代(圖40左)
- d、鳥取縣大寺의 石鷓尾…白鳳時代(圖41右)
- e、奈良 法輪寺出土鷓尾…白鳳時代(圖42上、左)
- f、和歌山堂ヶ谷瓦窯出土鷓尾…白鳳時代
- g、法隆寺 玉虫厨子の鷓尾…飛鳥時代(圖42上、右)
- h、唐招提寺金堂의鷓尾…奈良時代
- i、大阪 高井田廢寺址出土鷓尾…白鳳時代(圖41左)
- j、奈良縣 傳山田寺址出土鷓尾…飛鳥時代等이 있으나百濟樣式の鷓尾로 밝혀지고 있는 것은 a、b、c、e 等の例^㉞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鷓尾들은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扶餘地方的百濟鷓尾와는細部面에서 相異點이 있다.

三、百濟鷓尾의 樣式과 手法

이상 앞에서 考察한바와 같이百濟鷓尾는胴體의 施文을 段形列線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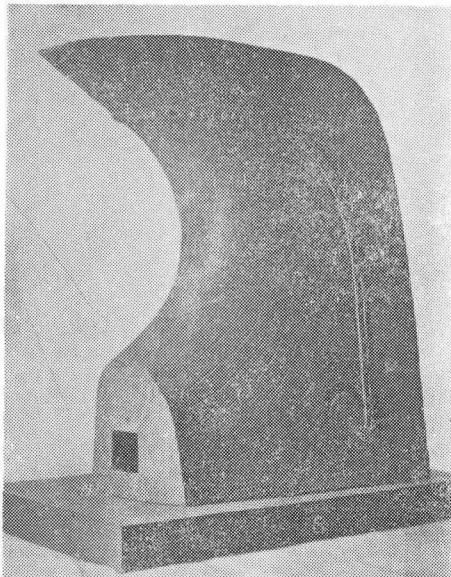


圖 40. 左는兵庫 高丘瓦窯出土 鴟尾 右는 大阪四天王寺의 鴟尾(日本の 美術에서 轉寫)

으로 된 羽狀을 放射形으로 彫出하고 背部 中央에는 柔軟한 曲線을 이룬 稜骨이 頭部에서 차츰 減小하여 後尾羽飾部 後端까지 連結되면서 自體의 均衡을 유지하고 있다. 稜骨은 대나무와 같이 胴孔으로 되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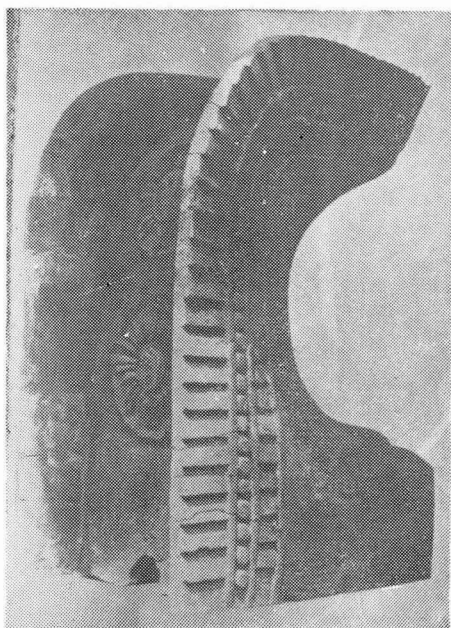


圖 1. 左는 大阪, 高井田廢寺址 出土鴟尾 右는 鳥取·大寺의 石鴟尾(福樹寺) (日本の 美術에서 轉寫)

後尾部와 胴體는 縱帶로 分界하고 있다. 이와 같은 樣式이 大宗을 이루고 있는 百濟鴟尾의 造形手法은 各部를 別度로 빚어 附着한 후 燔造하였다.

西安·慈恩寺大雁塔의 創建은 652년으로 알려져 있고 있지만 그후 落되어 701~705년에 改造한 것으로 傳하고 있어 楣石에 線刻된 鷓尾는 八世紀初에 比定되는 唐·鷓尾로 唐系樣式을 살필 수 있는 좋은 資料이다. 이와 같은 樣式의 鷓尾는 慶州 千軍里寺址 金堂址鷓尾에서 살 져 볼 수 있지만 扶蘇山出土 鷓尾片(圖 19)이나 金剛寺址出土 鷓尾片(圖 22)에서도 같은 手法을 보이고 있어 百濟鷓尾에도 唐文化의 影響이 미 쳤음을 살필 수 있는 資料가 아닌가 생각된다. 特히 金剛寺址 鷓尾殘欠 (圖 22)은 圖 21、23의 金剛寺址 鷓尾에 比해 時代가 떨어져는 手法을 보인 連珠文을 浮彫한 點이나 胴體를 厚肉으로 빚어서 後尾羽飾部는 段 形으로 彫出하고 胴部는 素地로 한 것 등은 唐系鷓尾에서 찾아 볼 수 있 는 手法이라 하겠다. 이 같은 鷓尾는 慶州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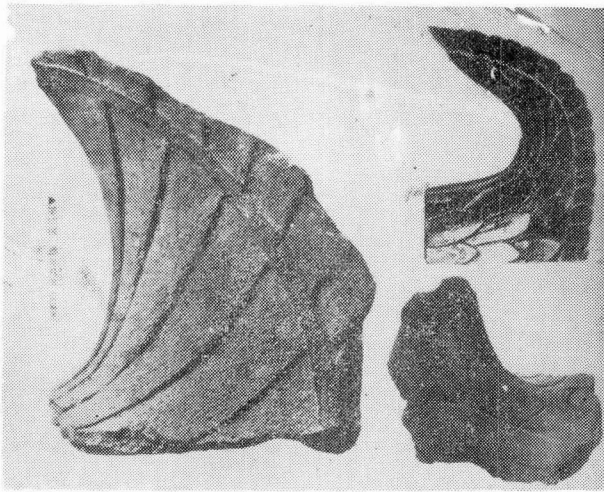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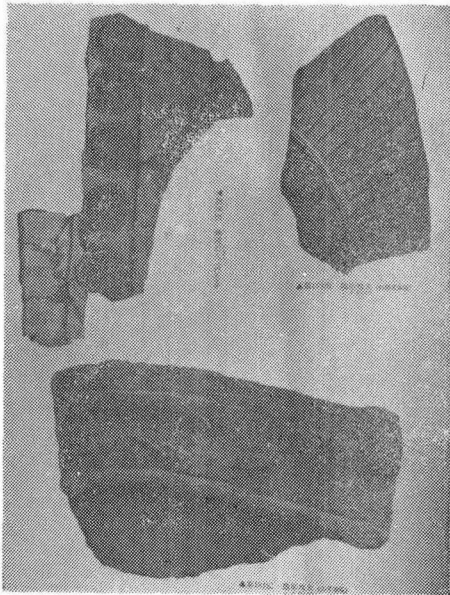


圖 42、上 右上是 玉虫厨子の 鷓尾
右下는 山田寺址 鷓尾殘欠

下 右上是 法輪寺鷓尾殘欠
左上是 打越瓦窯址 鷓尾殘欠

左上是 四天王寺 鷓尾殘欠
下는 太平寺址 鷓尾殘欠(日本の 美術에서 轉寫)



仁旺洞 雁鳴池出土 鷓尾(祇林寺址出土 鷓尾殘欠、千軍里出土 鷓尾等)에 確認되는 統一新羅時代의 唐系鷓尾 手法으로서 百濟鷓尾中 唐系樣式의 手法을 보인 소수의 鷓尾를 이와 比肩하여 百濟末期(7世紀中葉以 後)로 推定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百濟鷓尾中 唐系樣式을 除外한 鷓尾는 대체적으로 百濟樣式이라 通稱 할 수 있는 手法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特徵을 살필 수 있다.

몸전체를 階段形의 平行線條로 된 羽狀을 放射形으로 浮彫하였거나 陰 刻列線文으로 施文하였고 後尾羽飾部와 胴體尾部를 分界하는 縱帶는 凸 帶로 되었다. 凸帶로 된 縱帶는 素文으로 가늘며 二條로 된 縱帶內에는 陰刻斜線을 施文하기도 하였고 凸帶를 彫出하지 않은 것은 段을 두어 縱帶로 가름하기도 하였다. 後尾羽飾은 扶蘇

山 西腹寺址鷓尾에서 確認된바와 같이 초생 달형으로 彫出하였거나 鋸齒文形 또는 段形 을 나타낸 것도 있으며 곧게 잘라서 處理한 것 등 다양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背面的 稜骨도 胴體에 段形列線文을 彫出한 것은 斷 面半圓形으로 가늘게 背面中央에 浮彫하였으 나 唐系樣式으로 推定되는 素文으로 된 것은 扁平하고 넓게 퍼져서 稜骨이 背部를 形成하 고 있다. 體壁의 두께는 比較的 古式的이라 고 推定되는 것으로 胴體에 段形列線文을 彫 出하고 簿葉質이며 색깔은 灰色이 大宗을 이 루고 있으나 붉은 黃土色 또는 黑色을 띤 것 도 나타나고 있다. 胎土는 精練된 高운흙을 대부분 使用하였으나 砂粒이 섞인 거친흙을 이 용한 것도 있다.

百濟鷓尾는 土器나 瓦博에서와 같이 대부 분 軟質로 되어 있다.

四、結 語

中國에서 漢代에 나타난 鷓尾는 辟邪의 뜻으로 災殃을 쫓는데 目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後代에는 建築部材의 一種으로 轉換使用되어 오다가 消滅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따르고 있으나 어느 時期에 消滅되었는지는 確認할 수가 없다. 우리 나라의 鷓尾使用은 高句麗古墳壁畫에서 確認되듯이 4~5世紀頃に 高句麗에서 始作되었으며 百濟와 新羅는 高句麗에 比하여 상당한 時差가 있다고 보아진다.

특히 百濟는 佛敎傳來와 함께 建築術 등이 流入된 후 南朝諸國과 깊은 關係를 맺어서 發展된 百濟文化는 南朝의 文物이 百濟人의 嗜好에 알맞게 土着醇化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要素는 當代 文化遺産에 投影되어 있으며 泗泚城 遷都後에 가장 爛熟한 文化를 이루었다. 이런 文化的인 要素는 瓦當과 鷓尾 博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飛鳥文化는 百濟文化의 延長이며 泗泚時代의 百濟文化라 할 수 있을 程度로 百濟文化와 密着되어 있다. 이것은 日本에 있는 當時의 飛鳥文化遺産에서 實證이 되고 있으며 鷓尾에서도 百濟樣式을 따르고 있음이 當代 鷓尾片에서 確認되고 있다. 百濟의 鷓尾使用은 泗泚城 遷都後에 始作된 듯하나 扶蘇山 西腹寺址의 復元된 鷓尾에서 全貌를 確認한 바와 같이 藝術적이고 建築學的인 面에서 이루어진 緻密한 設計는 景탄을 금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百濟의 鷓尾는 百濟樣式이라 通稱할 수 있는 獨自의 樣式을 創出하여 泗泚城地域에서 盛行되었으며 百濟特有的인 鷓尾樣式을 지니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그러나 雙北里寺址에서 發見된 鷓尾片(圖 27, 28)에서는 唐系樣式과 高句麗系統의 것으로 推定되는 資料도 있어서 앞으로 高句麗鷓尾에 對한 資料의 增加와 함께 比較分析되어 相關關係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前例以外에 扶餘地方에서 發見된 百濟時代 各種鷓尾의 形態의 類型別

考察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特徵을 發見할 수 있었다.

1, 百濟鷓尾는 百濟人의 嗜好에 알맞게 創出한 造形手法을 보이고 있어 百濟式이라 通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7世紀 中葉以後에는 形態는 變化하지 않고 文樣에 若干의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縱帶에 連珠文 또는 寶飾文·唐草文 등이 나타난다. 胴體는 점차 無文으로 變化하여 百濟末期에 이르러 稜骨部가 넓게 퍼져서 背部全體에 걸쳐 되고 壁體는 두터워지고 두박하게 변화한다. 이런 것 등은 唐文化의 影響으로 推定되나 그 예가 희소하다.

3, 百濟鷓尾의 古式的인 手法은 段形列線文羽狀을 放射形으로 胴體와 後尾羽飾部에 걸쳐 彫出하고 胴體와 後尾羽飾部는 微細한 縱帶로 分界한 手法을 보이며 壁體는 얇고 軟質이며 裝飾이 없다. 胎土는 精選된 高운粘土를 利用하고 있다.

4, 扶餘地方에서 發見된 鷓尾中 最古의 手法을 보인 예는 扶蘇山鷓尾斷片(圖 20)으로 推定되며 이것은 高句麗鷓尾(通溝附近出土)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5, 百濟의 鷓尾는 扶蘇山 西腹寺址 鷓尾에서 確認된 바와 같이 後尾羽飾部 上端에 또다시 裝飾을 加하여 威容과 儀裝에 配慮하였던 듯하다.

6, 百濟鷓尾는 計劃된 設計에 의하여 기와 높일 자리 등이 갖추어진 屋蓋部材이나 結構에 容易하도록 重量과 크기에 따라 半分 또는 三分하여 造成한 것도 있다.

7, 百濟의 鷓尾使用 時期는 扶餘地方에 位置한 各廢寺址마다 鷓尾片이 發見되는 點으로 이루어 泗泚城 遷都後에 始作되어서 六世紀中葉以後에는 盛行하였을 것으로 推定된다.

〈註〉

- ① 關野 貞: 「瓦」考古學講座 5·6 p.13 雄山閣 日本.
- ② 朴容填: 「百濟瓦當에 關한 研究」 公州教育大學論文集 第5輯 p. 36 1968.
- ③ 金鍾太: 「樂浪時代의 銘文考」 考古美術 135 p. 80 韓國美術史學會 19

77.9.

④ 輕部慈恩：「百濟美術」P.184 寶雲舍 日本東京 1946.

⑤ 日本書紀 崇峻天皇元年條.

⑥ 三國遺事 卷三 皇龍寺九層塔條.

⑦ 隋書 東夷百濟條와 北史 百濟條에 「有僧尼多寺塔」、周書 異域傳 百濟條에 「僧尼寺塔甚多 而無道士」.

⑧ 1936年(昭和11年)古蹟調査報告書 p.45 朝鮮古蹟研究會.

⑨ 1938年(昭和13年)古蹟調査報告書 p.36 朝鮮古蹟研究會.

⑩ 前揭註⑨ p.42

⑪ 前揭註⑧ p.65

⑫ 扶餘博物館 日誌에 依하면 1942년 發掘調査.

⑬ 前揭註⑫에 1942~1943년 發掘調査.

⑭ 金剛寺·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7冊 1969.

⑮ 前揭註⑫에 1942년 發掘調査.

⑯ 拙稿·百濟의 鷓尾復元 박물관신문 81호.

⑰ 「越在東南 故立蛇門 以制敵國 吳在辰 其位龍也 故小城南門上反羽爲兩鯢 繞以象龍角 越在巳地 其位蛇也 故其南大門上有木蛇 北向首 內示越屬於吳也」

原田淑人：「鷓尾に就して」東洋學報 14-1 1923(大正十二年)년에 轉載 上記一는 筆者가 標示.

⑱ 「建章宮圓闕臨北道 鳳凰在上 故曰鳳闕也」前揭註 17에서 轉載.

⑲ 北史宇文護傳 「自晋以前 未有鷓尾」晋中興書 「太元十年(385年) 鶴巢 太極殿東鷓尾」晋書·安帝紀「義熙五年(409) 六月丙寅 震太廟 破東鷓尾 徹壁柱」.

⑳ 陳書의 蕭摩訶傳에 「舊制三公黃閣 聽事置鷓尾 後主特賜摩訶 開黃閣 門施行馬 聽事 寢堂 並置鷓尾 仍以其女 爲皇太子妃」라 하였고 六世紀에는 高官의 집에 도 鷓尾를 使用한 例가 있다.

㉑ 北齊 魏收撰 魏書卷77 高謙之傳에 「高謙之弟恭之 字道穆：正光中(520~526) 出使 相州(前)刺史 李世哲 即尚書令崇之子 貴盛一時 多有非法 逼 買民宅 廣興屋宇 皆置鷓尾：道穆 繩糾 悉毀去之」라 한 記錄에서 非法으로 쓰인 例를 볼 수 있다. 村田治郎：「中國의 鷓尾略史」佛敎藝術 每日新聞社 刊에서 轉載.

㉒ 祁英濤：「中國古代建築的脊飾」p.67, 圖1: 8 河北安平 漢墓壁畫 東漢

熹平5年(176년) 文物 1978年 第三期(總 二六二期).

㉓ 前揭註② p.67 圖二：6 漢畫象石 圖二：12 漢畫像石上之函谷關 參照.

㉔ 前揭註② p.67 圖三：3 雲岡石窟九·十窟彫刻(北魏) 鷓尾參照.

㉕ 前揭註② p.67 圖三：4 龍門石窟古陽洞彫刻(北魏)正始四年 寺기 507년) 鷓尾參照.

㉖ 前揭註② p.67 圖三：6 麥積山 140窟壁畫(北魏) 鷓尾參照.

㉗ 前揭註② p.67 圖三：5 敦煌 257窟(北魏) 圖三：9 敦煌 285窟壁畫(西魏) 鷓尾參照.

㉘ 前揭註②：「鷓尾に就して」p.134 第二圖參照.

㉙ 前揭註②參照.

㉚ 前揭註② 漢墓壁畫에서 보인 鷓尾形象은 東漢熹平5年 寺기 176년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이 鷓尾形象만으로 建築에 使用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前揭註②等의 內容으로 미루어 鷓尾가 造形되어 建築에 使用된 것은 四世紀前半쯤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推定된다.

㉛ 前揭註②에 의하면 吳와 越이 서로 敵으로 對立할 때에 東南에 있는 越은 十二支의 巳地方向에 있어서 南大門의 屋上에 木蛇를 두었고 辰의 方向에 있는 吳에서는 南門上에 兩鯢繞라한 反羽를 龍角象으로 두었다는 것인 바 이것이 鷓尾의 始原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反羽와 鯢繞에 대하여는 異見이 많다.

鯢는 說文에 鯢大者謂之鰐라 하고 鰐는 大鯢別名이라 하였으나 암고래를 이르는다고 鯢는 苗와 同字라 하였으니 그 본뜻을 알 수가 없으나 鯢繞는 蛇를 이길 수 있는 물에서 사는 動物을 일컫고 있는 듯하나 문제가惹起된 것은 反羽로서 「反羽」를 鳳凰의 것으로 보는 것과 鯢繞에 좇아서 魚形으로 보는 데서 오는 見解差이다. 그러나 考古學辭典(水野清一 小林行雄編 東京 創元社 刊行) p.417에는 「反羽は鳳凰などの羽を左てた形である」라 하였다.

㉜ 晋王嘉(字年)撰·梁 蕭綺錄 拾遺記에 「鯢治水無功 自沈羽淵 化爲玄魚 海人於羽山下 修玄魚祠 四時致祭 嘗見灑灑出水長百丈 噴水激浪 必兩降」, 漢書 「越巫請以鷓尾魚 厭火災 今鷓尾即此魚也」라 하여 怪魚談을 삼았았으나 原田淑人の 「ての反羽から鷓尾の本體は羽であるらてとを提説され」(東亞古文化研究 p.338)를 따르고자 하며 災殃을 막는 데 뜻이 있었다고 본다.

㉝ 村田治郎：「中國의 鷓尾略史」圖4(永樂宮龍虎殿의 彩釉鷓尾(元)) 佛敎藝術 每日新聞社 參照.

㉞ 小林行雄·水野清一編：考古學辭典 p.417

- ②4 韓國美術全集 4 壁畫 p.19 圖 7.
- ②5 前揭註 ②4 p.39 圖 27
- ②6 前揭註 ②4 p.5
- ②7 前揭註 ②4 p.35 圖 43.
- ②8 前揭註 ②4 p.63 圖 51.
- ②9 前揭註 ②4 p.72 圖 60.
- ④0 則天造明堂於頂上鑄鐵爲鸞鷲高二丈以金飾之軒軒如飛數年大風吹動猶存其址更鑄銅爲大火珠飾以黃金煌煌耀日今見在焉」前揭註 27에서 轉載
—는 筆者의 標示.
- ④1 朱榮憲：高句麗의 壁畫 古墳 圖 42 學生社 日本 1972.
- ④2 前揭註 ②4 p.5
- ④3 1937年(昭和12年)度古蹟調査報告：泥佛出土地 元五里廣寺址の調査 p.89 瓦製鷓尾殘欠五片・元五里廢寺址發見 高句麗時代 瓦當及鷓尾破片(圖版六六：6) 參照、朝鮮古蹟研究會。
- ④4 井內功：鷓尾論巧(井內古文化研究室報 10) p.15; 挿圖 7 參照。
- ④5 扶餘地方에서는 各建物址마다 發見되고 있음.
- ④6 前揭註 ④ p.225 圖 52 蓮花文의 浮彫된 이 小片을 鷓尾의 斷片으로 보는 見解도 있으나 鷓尾片이라 確證할만한 根據가 없다. 만일 鷓尾의 腹部斷片이라면 胴體의 他片도 發見되었어야 할 것이나 거대한 鷓尾중에서 蓮花文이 浮彫된 腹部片만 發見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④7 三國史記 卷 26 百濟本紀 4 武寧王條.
- ④8 朴容瑛：「公州出土의 百濟瓦·磚에 關한 研究」百濟文化 제 6 집 p.70 1973.
- ④9 飛鳥寺 創建을 爲하여 百濟威德王 35年(日本崇峻天皇 元年(서기 588))에 渡倭한 百濟의 僧侶는 6人 造寺工人은 8人 이었으며 또한 飛鳥寺址에서 發見된 鷓尾片은 扶餘의 各建物址에서 發見된 鷓尾片과 똑같이 渡倭한 百濟工人들의 의하여 造形되었을 것으로 推定할 수 있는 可能性이 었보인 다.
- ⑤0 稻垣晋也編：「古代の瓦」中「鷓尾」日本の美術 11 第66號 至文堂 p.90 1971年 11月.
- ⑤1 東亞日報 1978年 12月 6日字 7面.
- ⑤2 藤島亥治郎：「三國時代及び新羅時代 建築樣式論」朝鮮建築史論 其五 p.330 C、鷓尾千軍里廢寺金堂址出土(建築雜誌 第四四輯 第五三六號) 1930年

- 八月.
- ⑤3 前揭書 p.331 石造鷓尾 祇林寺 出土.
- ⑤4 佛國寺復元工事報告書 圖 112・113 文公部 文化財管理局篇.
- ⑤5 國立慶州博物館所藏.
- ⑤6 前揭註 50 p.91
- ⑤7 아래위를 公게 가므로 절단한 것으로 미루어 三分한 것으로 推定되며 이 鷓尾는 頭部가 包含된 底部와 위의 尾部를 連結하여 重疊하여야 하나의 鷓尾가 될 수 있다.
- ⑤8 確實한 所在地는 알 수 없으나 扶蘇山 西麓 賞春園 東北側 향교밭寺址로 推定된다. 鷓尾片에 扶餘 舊校里 羯磨寺址出土로 記錄되었으나 舊校里에는 他廢寺址가 없어 羯磨寺址는 향교밭寺址가 아닌가 推測된 뿐이다.
- ⑤9 二個의 稜骨片을 調査한 結果 잘린 面의 斜線이나 痕蹟이 일치하여 半分된 것으로 推測된다.
- ⑥0 前揭註 ⑤0 圖 181.
- ⑥1 大脇潔：「古代日本の鷓尾」p.31(月刊文化財 1976年 2月號) 第一法 規社 日本.
- ⑥2 前揭註 ④4 p.178 參照.
- ⑥3 前揭註 ⑤0 p.91
- ⑥4 前揭註 ④ 圖版 43.
- ⑥5 同上 圖版 43의 2.
- ⑥6 雙北里寺址는 扶餘教育廳敷地와 扶餘 國民學校敷地에 各各 位置하고 있어 混同하기 쉬우나 教育廳敷地에 日政時 金城小學校를 建立하였었다.
- ⑥7 前揭註 ⑥1 p.34
- ⑥8 洪思俊：「百濟의 漆岳寺와 烏舍寺小考」百濟文化 第3輯 p.2 1969年
- ⑥9 前揭註 ⑥1 p.25
- ⑦0 前揭註 ⑤0 p.91
- ⑦1 前揭註 ④4 p.154
- ⑦2 慶州博物館所藏.
- ⑦3 高句麗系統의 瓦當이 同時에 出土되어 이와 聯關된 鷓尾(蓮花文瓦當과 鷓尾의 色이 밝고 胎土도 同質)로 볼 수 있으며 樣式이 相異한 唐系鷓尾도 發見되었다.
- (國立扶餘博物館 學藝研究士)